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re.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매스항만청장 "서울직항 우리도 환영한다"

로건공항 현재 한국과 진행중인 직항 협상 없어  
항공사측, 보잉 737 차세대기 구입시 가능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로건 공항을 관리하는 매스항만청(Mass-Port)은 아직까지 한국의 항공사들과 직항로 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

지만 한국항공사와의 직항로 개설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글린 매스항만청장은 16일 보스톤항만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토마스 글린 매스항만청장이 16일 서울 직항로 개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직항로는 흥미롭고 환영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 글린 청장은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타산성, 잠재 고객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점검한다. 보스톤 소재 고객들의 관심사와 달리 항공사는 어느 도시에 취항했을 때 더 이익이 나는지 계산할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매튜 브렐리스 매스항만청 대변인은 "직항로 개발에 문외한 결과 한 한국의 항공사는 약 2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한국까지 먼 항로를 날 수 있는 보잉 737 차세대 항공기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아 취항할 수 없으며 신규 항공기를 구입하는 즉시 직항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브렐리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의 항공사가 어느 항공사인지는 밝힐 수 없다" 고 말했다.

보잉항공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차이나 항공을 비롯해 상당수의 항공사가 보잉737차세대 항공기를 주문했거나 일부 인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항공(JAL)의 경우 좌석수 210-250석인 보잉 787-8드림라이너를 보스톤에 취항하고 있으며 매일 도쿄로 ▶▶2면으로 계속



## 토빈브리지, 공항터널 통행료 10월부터 양방향 모두 징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북쪽으로 1번도로를 타고 갈 때 만나는 토빈브리지의 통행료가 바뀐다.

올 10월부터 토빈브리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며 대신 요금은 \$1.25로 낮춰진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북쪽에서 1번도로를 타고 보스톤에 진입할 때만 요금을 지불했으며 통행료는 \$2.50이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 제클린 고다드는 이번 통행료 징수체제 변경은 일반적으로 보스톤 진입 운전자들에게만 부과하던 것을 양방향 운전자들에게 고루 분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2014년부터 토빈브리지 이지패스 검색대를 철거하고 사진을 찍어 이지패스 소유자들의 통행료는 자동적으로 징수하고 일반 통행자들의 경우 번호판을 통 ▶▶9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성수기 출발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610

에어캐나다항공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617-424-8956

\*\$1610.00은 에어캐나다 항공 요금으로 출발날짜에 제한이 있으며, 6월 21일까지 발견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의 사정,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권유가여야  
최상의 부흥 서비스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Direct: 617.642.5670  
won@bostonpremierrealty.com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 일본항공(JAL)의 경우, 매일 보스톤에서 도쿄로 출발 보스톤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한인들 일본항공 이용

▶▶ 1면에 이어서

출발하고 있다. 보스톤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일본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항공은 23대를 787-8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단 1대만 보유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거주 한인인 유학생을 제외하고 2만5천여명, 뉴잉글랜드 전체로는 약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 인구는 매사추세츠의 경우 약 1

만여명에 불과하다. 일본항공은 보스톤 직항로를 통해 보스톤과 아시아 각 도시를 잇는 허브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후 보스톤-베이징 직항로가 2014년 1월, 이어 2015년 2월에는 보스톤-상하이 직항로가 개설됐다.

보스톤 소재 로건 국제 공항은 드별 패트릭 주지사 재임 시절 본격적인 확장에 나섰으며 지난 5년간 직항항로를 2배로 늘려 현재 53개의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승객도 따라 증

가해 5년만에 33% 증가한 5백 50만명에 달한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홍콩까지 4개의 도시가 보스톤과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다.

매스항만청은 16일 소수민족 기자들을 초청해 국제항공사들이 취항하는 터미널 E의 현대화 업그레이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hsb@bostonkorea.com



16일 보스톤항만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토마스 글린 매스항만청장



## 메가 밀리언 잭팟 3억1천만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금요일 추첨하는 17일 메가 밀리언의 잭팟이 3억1천만불로 불어났다.

매사추세츠 로타리 당국에 따르면 메가밀리언은 지난 3월 8일 이래 28번의 추첨동안 당첨자를 뽑지 못해 이번주 금요일 3억 1천만불에 달하는 잭팟으로 커졌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 2억1천1백1십만불을 받게 된다.

메가밀리언은 지난 2014년 11월 당첨된 3억2천1백만불이 최고 잭팟이었다. 지난 1월 파워볼 잭팟은 사상 최고인 15억달러 규모까지 커졌

으며 3명의 당첨자를 낸 바 있다.

메가 밀리언은 1996년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해 조지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5개주에서 빅게임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2002년 뉴욕 등을 편입하면서 빅게임이름으로 바꿨다. 2010년 미국내 44개주로 확대하면서 메가밀리언으로 이름을 바꿔 파워볼과 함께 미국내 가장 큰 로터리로 자리잡았다.

14일 당첨번호는 메가볼이 6이었으며 36, 37, 38, 52, 62였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김현수, 보스턴에서의 활약은 다음 기회에

김현수 보스턴 방문, 굳은 표정 역력  
1차전 불출장, 2차전 안타 없이 1삼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11년차 야구 베테랑도 낯선 환경에선 긴장하는 모습이였다.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 선수는 제한된 기회 속에서 3할 타율과 4할 출루율을 과시하며 주전확보에 한발 다가선 모습이였다. 보스턴을 방문한 그를 만나기 위해 펜웨이파크를 찾았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 4차전 경기를 앞둔 14일 펜웨이파크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관중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오랜만에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레드삭스는 볼티모어와 지구 1위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중요한 시합이었기 때문이다. 양팀 선발도 각팀의 에이스인 크리스 틸먼 (8승 1패)과 데이비드 프라이스 (7승 3패)로 예정되어 열기를 고조시켰다.

김현수 선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볼티모어의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를 찾았지만 외야수 전체 미팅을 위해 기다리고 있어 경기가 끝나고 하겠노라 했다. 외야수 전체 미팅이 끝나고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나와 몸을 풀었다.

펜웨이의 명물인 좌측 담장 그린몬스터 아래서 간단히 몸을 풀 김현수는 캐치볼에 이어 홈플레이트에서 날아오는 연습용 타구를 잡는 연습을 했다. 연습 내내 굳은 얼굴이었지만 간간히 다른 선수들과도 캐치볼을 하며 웃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좌익수들을 괴롭히는 그린몬스터에 튕겨 나온 공을 처리하는 연습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김현수는 선발출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오리올스의 쇼월터 감독은 좌타자인 김현수를 오른손 투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만 이용하고, 왼손 투수일 경우에는 배제하는 플레튼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레드삭스의 선발 프라이스가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김현수를 감안하여 우타자인 놀란 레이몰드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수가 왼손 투수를 상대한 것은 지금까지 단 세 차례 뿐이었다. 놀란 레이몰드는 이날 무안타 삼진 2개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는 양팀의 팽팽한 투수전 끝에 1회초 먼저 투런 홈런을 뽑은 오리올스가 3-2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펜웨이 파크를 찾은 김현수 선수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필드에 들어서고있다

레드삭스의 선발 데이비드 프라이스는 8회까지 피안타 5개, 삼진 11개를 잡으며 호투했으나, 1회 매니 마차도에 투런, 8회에 조나단 스콧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한 것이 뼈아팠다. 레드삭스는 7회 브래들리 주니어의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8회에 한점 차까지 쫓아갔으나 거기까지였다. 레드삭스는 한점을 뒤진 9회 초 마무리 투수인 크레이그 킴브렐까지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경기가 끝난 후 김현수의 취재를 위해 다시 클럽하우스를 찾았지만 김현수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김현수 선수의 취재를 위해 한국에서 온 기자들은 김현수 선수가 오늘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있었던 이유가 강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긴장했거나, 플레튼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

했다. 최근 2경기 동안 무안타를 기록한 것, 또는 김현수가 고대해 왔던 프라이스와의 대결이 무산된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여졌다. 이날 김현수는 기자단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현수는 다음날인 15일, 레드삭스의 오른손 투수 스티븐 라이트를 상대로 좌익수 2번타자로 선발 출전했지만 5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부진했다. 김현수 뿐 아니라 오리올스 타선 전체가 라이트의 변칙적인 너클볼에 압도당했다. 반면 레드삭스는 헨리 라미레즈의 쓰리런에 힘입어 6-4로 승리를 거둬 전날의 패배를 설욕했다. 오리올스는 16일을 끝으로 보스턴 방문 3연전을 마치고, 17일부터는 3일간 이대호가 소속된 시애틀 매리너스의 펜웨이 방문 3연전이 시작된다.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l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사 | 미션현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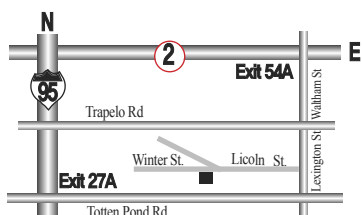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총재 보스톤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6월 28,29일 양일간 보스톤을 방문, 한국자유총연맹 보스톤지부를 창립할 계획이다.

보스톤 한인회는 “김총재가 보스톤지부를 창립하기 위해 보스톤지부를 이끌어 갈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경재 총재는 29일 수요일 오후 5시께 보스톤지역 단체장과 한인들을 초청해 보스톤지부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스톤 한인회측은 자세한 시간과 장소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김경재 총재는 올해 2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에서 열린 중앙회장 선거에서 재직 대의원 459명 중 368명이 투표한 가운데 205표(득표율 55.7%)를 얻어 163표를 얻은 15대 중앙회장 허준영(64) 전 경찰청장을 꺾고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도우며 정치에 입문했고,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15년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이때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김대중 납치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의 회고록을 펴냈다.

김 회장은 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캠프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특보로 참여해 당선을 도왔다. 현 정부 출범 후엔 청와대 홍보특보를 지내는 등 친박 이사로 분류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의 우익 이념운동 단체이다. 2003년부터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은 3백만명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6월 10일 애머스트 소재 한국학교강당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학습발표회 및 졸업식을 가졌다

## 애머스트 한국학교 졸업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6월 10일 애머스트 소재 한국학교강당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학습발표회 및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지난 학기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발표했다. 5학년, 6학년 반 학생들은 한국, 미국, 일본의 대표음식을 비교 조사해서 발표했다. 3학년 학생들은 선택여왕과 광개토대왕을 가상으로 인터뷰했다. 기초 2반 학생들은 한국 메이저리

거 박병호 선수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다.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이번 학기로 한국학교를 떠나는 되는 오시연, 김수아, 그리고 이소민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6월10일을 끝으로 마무리한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9월 9일 새학기를 시작한다. 학교에 관한 후원 및 문의는 koreanainamherst@gmail.com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즈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솨용치는 활력과 건강,  
복용으로 누리세요.**

정관장 뉴잡랜드 농분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용량정 오일젤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포우후루 다중날 전에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다주토도 배송 해드립니다.**

# MIT 맷 버트 매니징 디렉터의 한국사랑

MIT 학생들을 한국으로 연결하는 MISTI 코리아 한국 인턴, 글로벌 티칭, 한국어 과정 세가지 프로그램 한국을 MIT로 데려오고, MIT를 한국으로 보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IT 캠퍼스 내 엠허스트 스트리트 1번지는 세계와 연결되는 곳이다. 이곳 빌딩에 자리잡은 MISTI(MIT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itiative)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칠레, 멕시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벨기에 등 세계 18개 국에서 학생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

4층 412호에는 MISTI Korea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스탠딩 책상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 프로그램 매니징 디렉터 맷 버트 씨를 만날 수 있다. 올 가을학기부터 MIT 한국어 강좌가 정규과목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한 견인자 역할을 한 맷 버트씨에게 MISTI 코리아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그를 만났다.

버트 디렉터는 “MISTI의 목표는 MIT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연구와 혁신을 접하고 이를 이용해 연구와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ISTI는 1980년대 MIT에서 공부하던 일본학자가 일본을 배우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깊은 문화적 경험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국으로 가기전에 상

당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생들은 최소한 2년 동안의 한국어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한 개의 문화 과정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출국전 15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처럼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MIT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광범위한 연구활동을 하는데 한국을 배우는 등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이들은 직장에서의 여성 위치, 1.5 또는 2세들의 적응 문제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교육받는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스팅 기업들은 재능있는 MIT 학생들을 통해 연구프로젝트에 신선한 힘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기업 환경을 배우게 되며 동시에 호스팅 기업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이미 20명의 MIT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SK이노베이션, 연세대 등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2017년 1월에는 글로벌티칭랩 프로그램 소속 MIT학생들이 한국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친다. 올해가 4년째다. 이들은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MIT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 기술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부산 송도 고아원인 소년의 집에서 4명이 2-3주 정도 가르친다. 탈북자들을 위한 대안 학교인 여명학교와 파주에 소재한 세경 고등학교 등에 배정된다. 목표는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복돋을 수 있게 한다. 한국

의 경우 주로 시험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므로 이를 탈피해 로봇을 만든다거나, LED 큐브 만들기 등을 한다.

한국학생들은 이 MIT 학생들을 통해 MIT 교육의 단면을 엿볼 수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학생들은 한국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배우게 된다. 특히 한국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온다고 버트 씨는 말한다. 소년의 집은 MIT 동문이자 엔시소프트의 문화재단을 맡고 있는 윤송이씨가 기부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글로벌티칭랩 프로그램은 MIT 동문들의 기부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MISTI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총 38명의 MIT 학생들이 배정되며 이중에 한국계는 15명, 나머지는 한국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다. 버트씨는 “한국을 방문한 모든 학생들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거나,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이 나머지 자신들의 삶에서 한국과 연관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깊숙히 관여하는 것이 MISTI 코리아 프로그램이라는 맷 버트 디렉터는 최종적인 목표가 “한국을 MIT로 데려오고, MIT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여러가지 면에서 극과 극으로 반대되는 것이 많아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되면 비교적 간극이 적은 세계의 문화의 적응은 정말 쉽다. 따라서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며 내가 경험했던 것을 MIT 학생



한국 프로그램 매니징 디렉터 맷 버트씨

들도 경험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 맷 버트 디렉터는 아이다호의 작은 타운에서 자라났다. 1999년 선교를 위해 2년간 머물렀는데 서울 같은 큰 도시는 처음이었다. “완전히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서 신앙은 물론 커리어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년 후 현대 중공업에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다. 현대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현대는 다른 한국 회사들과도 다른 독특한 회사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으며 유타 소재 BYU국제 관계를 졸업하고 2008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첫번째 직장을 잡게 됐다. 국제협력팀에서 4년간 일하고 2011년 MIT에 스카우트되어 미국으로 돌아왔다. MIT에서 일하면서 그는 한국에 대한 뭇 수 없이 깊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말보로, 리버어, 웨이머스 등 보스톤 일대 중저가타운의 집값의 일제히 고속 상승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스톤 인근 저가타운 주택 가격 급속히 상승 중

보스톤 일대 중저가타운의 집값이 일제히 상승 부유한타운의 고급 주택 가격은 일부 하향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일대 중저가타운의 집값의 가격이 일제히 고속 상승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부유한타운의 고급 교외 주택들의 가격은 일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 14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블루컬러타운으로 간주되는 말보로, 리버어, 웨이머스 등 작은타운의 평균 집값이 \$200,000대에서 300,000대로 급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더워렌 그룹에 따르면 우번, 브레인트리 등 비교적 저렴한 대안타운으로 여겨졌던 보스톤 교외 소재 주택의 평균 가격은 \$300,000 후반대거나 \$400,000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격의 급상승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중산층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이들타운에 거주중인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부동산 투자의 효력을 의미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글로브는 지적했다.

그동안 보스톤 교외 고급타운의 집값은 계속 상승해 왔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주춤하다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급타운의 집값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타운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의 가격까지도 동반하락 중이다.

지금껏 저평가되었던타운의 집값들이 움직이면서 보스톤 지역의 나머지

지역들과 유사해져가고 있다.

495번 도로 밖에 위치한 말보로는 지난해 무려 16%가 올랐다. 지난해 4월 평균 집값은 \$286,500이었던 올해 4월 평균 집값은 \$331,000에 마감됐다. 워렌그룹의 통계자료를 보면 집판매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절반에 가깝게 뛰었다.

2번도로 인근에 위치한 셸리와 에이 어또한 집값이 30만불 대 인근까지 올랐다. 옆타운인 하버드는 30만불을 넘어섰다.

보스톤 남쪽 지역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웨이머스의 평균 집값은 \$299,000에서 \$333,625로 12% 올랐다.

보스톤 남쪽 해안가인 리버어의 평균 집값은 \$285,000에서 \$335,000로 18% 상승했다. 보스톤인접 북쪽 지역인 에버렛은 \$300,000대 에서 10% 오른 \$337,000였다.

이처럼 저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주택구매자들이 고가타운

## 최승훈 씨 출신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 한인회장 최승훈씨가 6월 11일 매사추세츠 그라프톤(Grafton) 소재 하이필즈골프CC(Highfields golf cc)에서 출신원을 기록했다.

최승훈 씨는 이날 보스톤 장로교회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참석해 2번출인 138야드 파3홀에서 출신원을 기록했다. 이날 라운딩에는 전

덕영 보스톤장로교회 목사, 강석진, 조성환 씨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32명이 참가했다.

최씨는 전덕영, 강석진, 조성환 씨와 함께 라운딩했다. 최씨는 이날 상품으로 골프 웨지를 받았다. 주최 측은 출신원 상패를 제작해 최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왼쪽에서 2번째가 출신원을 기록한 최승훈 씨

의 너무 높은 집값으로 인해 중저가타운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워렌그룹 크롤리는 "이전까지 메드포드, 몰든 또는 찰스타운 등의 저가 주택에 관심을 보였던 구매자들이 이제는 에버렛까지 구매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한 단계 비싼 가격의 교외타운들로 오랫동안 비교적 저렴하다고 평가됐던 중가 주택타운의 시장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프레밍햄과 몰든, 톱스베리 등의 평균 집값은 현재 \$350,000에서 \$370,000

가격대이며 우번, 브레인트리 그리고 프랭클린 등은 \$400,000대 선을 넘어섰다. 좀더 고급타운으로 간주되는 멜로즈와 메드포드의 집값은 평균 \$500,000대에 근접하고 있다. 내틱과 윌담은 \$500,000선을 넘어섰다.

레드리빙부동산 그룹의 레 깁슨 씨는 주택구입자들이 점차 95번 밖에서 프로비던스 인근까지의 지역대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매자들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구매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코파 2016〉 브라질, 우루과이 충격의 조별예선 탈락

브라질 대 페루전 '신의 손' 논란, 희대의 오심  
개최국 미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8강 확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우루과이에 이어 브라질도 탈락했다. 하향세는 있었지만 조별예선 탈락은 충격적이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2016 코파 아메리카(남미 축구선수권대회)의 조별 예선 24경기가 모두 끝났다. 다가오는 8강전은 미국,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의 대결로 좁혀졌다. 조별 예선에서 남미의 4강중 2강인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조별예선 탈락은 축구팬들을 충격에 안겼다. 우루과이는 키 플레이어 루이스 수아레스를 써보지도 못하고 예선 탈락했다. 브라질의 결선 토너먼트 진출 여부가 달렸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86년 월드컵에서의 '신의 손' 사건을 연상시키는 코파 100년 역사상 최악의 오심까지 일어났다.

우루과이는 수아레스가 햄스트링 부상과 경기력 저하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멕시코에 1-3, 베네수엘라에 0-1로 패해 일찌감치 예선 탈락을 확정지었다. 베네수엘라와전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수아레스는 교체 허락되지 않자 경기중 벤치의 벽을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옷을 벗어 던지며 분노했다. 우루과이는 앞으로 수아레스 없는 경기에서 필패라는 좋지 않은 공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선수단이 전체적인 침체에 빠진 브라질의 상황은 더욱 가혹했다. 12일 매사추세츠주 폭스보로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브라질은 페루에 0-1로 패했다. 브라질은 이로써 1승1무1패 조3위로 우루과이의 뒤를 이어 8강을 떨쳤다. 후반



페루의 라울 루디아스가 오른손으로 넣은 득점은 번복되지 않아 역대 대회 최악의 오심으로 기록되는 동시에 브라질에 예선 탈락의 수모를 안겼다. (제공: 코파아메리카 2016)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19분동안 헤트트릭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하며 세계 최고의 클래스를 입증했다

30분 페루의 앤디 폴로가 문전으로 올린 공을 라울 루디아스가 오른손으로 밀어넣어 득점에 성공했다. 명백한 반칙에 브라질 선수들은 즉각 항의했지만 파울은 인정되지 않은 채 경기가 끝났다.

페루의 득점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가 주먹으로 골을 넣었던 '신의 손' 사건에 비유되며 코파 아메리카 100년 역사상 최악의 오심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비록 페루전에서 오심이 있었지만 대회 1차전에서 브라질은 오심덕에 에콰도르와 무승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최악의 아이티전을 제외하고 대회 내내 무기력한 경기 내용을 보인 브라질을 질타하는 축구팬들도 많았다.

반면 미국은 2승 1패를 기록하여 콜롬비아

를 골득실로 제치고 A조 1위로 8강 토너먼트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의 컨디션 난조로 단 한 경기도 선발로 내세우지 못했지만 3전 전승 D조 1위로 토너먼트전에 진출했다. 메시는 파나마와 2번째 경기에서 후반 18분에 교체로 들어와 19분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 외에도 신의손이 도운 페루(B조)와 북미의 강호 멕시코(C조) 등이 각 조 1위를 차지하였다.

결선 토너먼트는 16일 미국(A조 1위) 대 에콰도르(B조 2위)의 경기로 시작되며 질레트 스타디움에서는 18일 오후 7시에 8강 토너먼트 제 3경기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o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바다 향 가득~ 돌아온 랍스터의 계절



**▶로이 무어**  
39 Bearskin Neck, Rockport, MA 01966  
978-546-6696  
락포트의 랍스터 맛집으로 로이 무어(Roy Moore)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아담한 입구에 빨간 랍스터 간판이 인상적이다.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로이 무어는 매년 랍스터 매니아들이 다시 찾아오는 락포트의 맛집이다. 통째로 찌낸 랍스터 외에도 스테르프 클램(Stuffed Clam)과 칵테일 슈림프(Cocktail Shrimp) 등이 인기 메뉴다.

시로 바로 올린다는 이곳은 찌낸 랍스터 외에도 스테르프 랍스터(Stuffed Lobster), 랍스터 라비올리 등의 요리가 유명하다. 무엇보다 랍스터 주문 시 식전빵(롤)과 콜슬로, 감자튀김 등의 사이드나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우드먼스**  
121 Main St, Essex, MA 01929  
978-768-6057  
woodmans.com



노스 쇼어(North Shore)에 가게 되면 꼭 들러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드먼스(Woodman's) 레스토랑이다. 가격이 조금 센 편이지만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아 손님들의 발걸음이 여름 내내 끊이지 않는다. 싱싱한 랍스터도 좋지만 프라이드 클램이 특히 유명하다. 단골 고객들의 말로는 우드먼스는 "뉴잉글랜드 최고의 프라이드 클램"을 제공한다고.

**▶랍스터 클로우**  
42 Cranberry Highway, Orleans, MA 02653  
508-255-1800

lobsterclaw.com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랍스터 클로우(Lobster Claw)는 이 지역의 손꼽히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싱싱한 해산물 요리가 일품이다. 30피트 길이의 배가 바(Bar)로 사용되어 굉장히 이색적인 분위기를 낸다. 테이블을 기다리면서 레스토랑 한켠에 마련된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얼리 버드 디너(Early Bird Dinner)에는 디너 메뉴 주문 시 차우더와 음료, 디저트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놀드 랍스터 앤 클램 바**  
3580 Route 6, Eastham, MA 02642  
508-255-2575  
arnoldsrestaurant.com  
아놀드 랍스터 앤 클램 바(Arnold's Lobster and Clam Bar)는 케이프 코드의 빼놓을 수 없는 해산물 맛집이다. 보물섬 테마의 미니골프장(1인에 \$7.50)도 구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놀러가기에 안성맞춤이다.

**▶맥스 썸**  
91 Commercial St, Wellfleet, MA 02667  
508-349-6333  
macsseafood.com  
분위기 있는 랍스터 음식점을 찾는다면 웰플릿에 위치한 맥스 썸(Mac's Shack)을 추천한다. 랍스터 외에도 굴 등의 해산물이 일품이며 스시도 판매한다. 월요일은 휴무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기다리고 기다리던 랍스터의 계절이 돌아왔다. 통통하게 오른 살로 풍부한 식감을 자랑하는 랍스터는 반드시 맛봐야 할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표 음식이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랍스터의 철을 맞아 지면을 통해 매사추세츠 주의 유명한 랍스터 맛집을 소개한다. 바다 향을 가득 품은 랍스터로 올 여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랍스터 풀**  
329 Granite St, Rockport, MA 01966  
978-546-7808  
락포트(Rockport) 바다를 바라보는 랍스터 풀(Lobster Pool)은 해질 무렵에 손님으로 가장 붐빈다. 랍스터의 풍미에 반하고 바다 위로 지는 석양에 한 번 더 반하는 곳이기 때문. 통째로 찌낸 랍스터 외에도 랍스터 롤, 클램 차우더, 프라이드 클램(Fried Clam) 등의 메뉴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꼭 맛 볼 것을 추천한다.

**▶더 글러스터 하우스**  
63 Rogers St, Gloucester, MA 01930  
978-283-1812  
thegloucesterhouse.com



글러스터 소재 더 글러스터 하우스(The Gloucester House)는 선착장에 위치한 분위기 있는 유명 맛집이다. 갓 잡은 랍스터를 배에서 접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GOLDEN GLOBE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무더운 여름 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는 보스톤 커먼의 개구리 연못 (사진출처 bostonfrogpond.com)

## 보스톤 커먼의 개구리 연못 6월 24일 개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의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개구리 연못(Frog Pond)이 오는 6월 24일 개장한다. 보스톤 커먼(Boston Common)의 연못인 이곳은 겨울에는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는 어린이 풀장 및 분수 놀이터인 개구리 연못으로 변신한다.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릴 오프닝 기념행사에는 연못의 공식 마스코트인 개구리 연못 프레디(Frog Pond Freddie)를 비롯하여, 페이스 페인팅, 영화 미들스쿨(Middle School)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

쳐질 예정이다. 보스톤 시장 마티 월시(Marty Walsh)는 이번 개장과 관련하여 “개구리 연못은 보스톤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더운 여름날을 보스톤 도심 랜드마크 공원에서 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보스톤 커먼에 와서 개구리 연못과 태드폴 놀이터(Tadpole Playground), 회전목마, 무료 시식회를 즐기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아이스크림 제조기 HP 후드(HP

Hood), 데이빗 티(Davids Tea), 소프 트 드링크 제조사 폴라 베버리지(Polar Beverages)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를 맛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각 시 단체에서 펼쳐지는 여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또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시즌 동안 개구리 연못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되며 이는 노동절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개구리 연못 외에도 회전목마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3불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bostonfrog-

pon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내 소득불균형 심각

빈부격차,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1%의 소득자가 나머지 99%보다 30배 더 많은 수입  
가장 소득불균형이 심한 지역은 서퍽 카운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미국 내의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지역이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곳 중의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 초 브룩킹 연구소(Brooking Institution)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보스톤은 미국 내 대도시 중 가장 극심한 소득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최고소득자 수입이 최저소득자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보스톤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체로 소득불균형 조사를 확대하자 결과는 더 심각하다. 경제 정책 기관(Economic Policy Institute)은 가장 최근의 기록인 2013년 소득 신고를 바탕으로 매사추세츠의 상위 1%의 소득자(\$540,000이상)의 수입이 나머지 99%의 소득자 수입의 30배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99%의 사람들이 1불을 버는 동안

나머지 1%가 30불을 번다는 이야기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서퍽 카운티(Suffolk County)로 상위 1%의 소득자가 나머지 99%의 51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1%의 연평균 수입은 \$2,351,713이다.

뉴욕, 코네티컷, 와이오밍, 네바다, 플로리다만이 매사추세츠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글로브의 에반 호로위츠(Evan Horowitz)에 따르면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소득 불균형은 소위 말하는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의 대공황 이전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다.

미국의 소득불균형에 관한 조사 결과는 epi.org/multimedia/unequal-states-of-america 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sun@bostonkorea.com

## 본격적인 요금 징수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

▶▶ 1면에 이어서  
해 추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교통부 대변인 고다드에 따르면 현재 보스톤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는 북쪽 방향 요금징수대는 이미 설치됐지만 본격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주 전역에서 고속통행 전자 요금징수 시스템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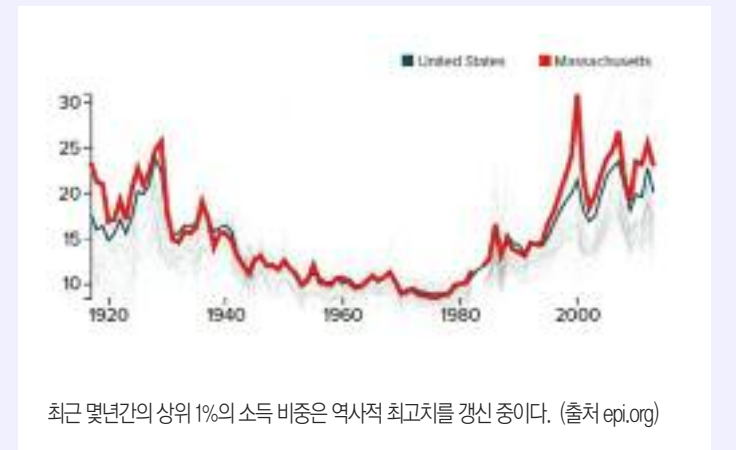
현재 토빈브리지의 경우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50센트의 벌과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같은 벌과금 체계는 곧 매스파이크 90번 도로에서도 시작될 예정이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지패스 트랜드폰더는 무료로 공급되며 2015년 11월 현재 차량 통행자의 85%가 이지패스를 사용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연 통

행료 징수를 통해 3억7천5백만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토빈브리지의 통행료 수입은 3천2백90만달러이다.

로건공항으로 통하는 두 터널 또한 현재는 공항에서 나올 때만 통행료를 징수했지만 10월부터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부과하며 대신 현재의 통행료를 반으로 나눠 징수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두통
- 두통, 편두통,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 비염, 천식, 알레르기, 만성 스트레스 관리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심혈관 질환 예방, 비뇨기 질환
-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 건강한 중추 신경 시스템을 위한
- 영구적인 치료로 영구적인 건강을 위한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lim Kim DPM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 가족 물리치료 병원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브리검 여성 병원 간호사 노조 파업 결정

추가 합의 없으면 오는 27일 파업 예정

브리검 병원 역사상 첫 간호사 파업될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 내 산부인과 및 여성질환 병원 중 최고로 꼽히는 브리검 여성 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간호사 노조가 지난 13일 파업을 결정했다. 직장 내 안전, 급여, 직원 수급 등의 이유로 병원 측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브리검 여성 병원 간호사 노조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켈리 모건은 “우리는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업이 결정되었다” 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13일 오전 6시부터 롱우드에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최종 투표 결과는 2,345대 115로 파업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현재 브리검 여성 병원에는 3,300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간호사 노조는 파업을 할 경우 최소한 열흘 전에 병원 측에 알려야 한다. 브리검 여성 병원 간호사 노조는 6월 27일을 파업 날짜로 정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시간까지 병원과 간호사 노조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미 브리검 여성 병원은 파업에 대비해 약 700명의 임시 간호사를 채용한 상태다. 또한 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130여명의 간호사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브리검 여성 병원은 간호사 파업 예정일에 병원 약속을 취소하거나 피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브리검 여성 병원의 론 웰스 부원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보스톤 지역에서나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며 “파업을 피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 고 밝혔다.

현재 브리검 여성 병원의 간호사들은 첫 18년 동안 연간 5%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병원측은 기존 임금안을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간호사에게 3년에 걸쳐 추가로 1% 임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노조는 기존 임금안에 추가로 18개월 동안 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브리검 여성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평균 연봉은 106,000 달러이다.

jsi@bostonkorea.com



지난 5월 27일, 브리검 여성 병원 간호사들의 거리 행진 모습



조셉 버피스 전 경찰서장이 지난 달 연방 지방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 MA주, 전직 경찰서장 감옥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전직 경찰서장이 금품 수수를 강요한 혐의로 결국 감옥에 수감되었다. 리(Lee) 타운 경찰서장이었던 조셉 버피스는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수차례 수감을 미루려 했으나 결국 지난 14일 오전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버피스 전 경찰서장은 이미 지난 달에 연방 지방 법원에서 유죄와 함께 2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에 스스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1달 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버피스 전 경찰서장의 변호인은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건강상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수감 기일을 늦춰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또한 버피스 전 경찰서장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은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신병상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형 집행을 늦추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버피스 전 경찰서장은 리 타운의 여관 주인들로부터 경찰서에서 주최하는 자선행사에 4천 달러를 기부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외에도 버피스 전 경찰서장은 사기와 돈세탁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jsi@bostonkorea.com

# JEI 재능교육

## SUMMER 2016

PREP COURSE

어린 아동,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Math**

**JEI** **English**

2달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과 동일하게 다룹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어른 Java 강좌 일정

weekdays, 9am-noon (수업료 별도)

호들란 Jr. High 4th 279-281 - 719(96)

왕곡동 AP prep. for High School 11th 719(30) - 719(16)

문의: 719(30) - 719(16)

문의: 719(30) - 719(16)

**JEI**

Learning Centers®

jellearning.com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8

TEL: 781.348.0878

EMAIL: burlington@jel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BOSTON**

주책,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 디즈니 호수서 악어에게 끌려간 2살 아이 시신 발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 인공 호수 해변에서 악어에 잡혀 물속으로 끌려들어간 2살 남아아이의 시신이 하루만인 15일 발견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경찰당국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아이의 시신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악어에게 끌려들어간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소년은 악어에게 끌려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이는 14일 석양무렵 디즈니월드 인공호수인 세븐씨스 라군에 있는 디즈니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 & 스파 해변의 1-2피트 정도 깊의 물속을 거닐다 갑자기 나타난 악어에 끌려 호수로 사라졌다.

옆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는 악어에 끌려가는 아이를 구하려 물속으로 뛰어 들었으나 손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하고 구조에 실패했다. 네브래스카에 사는 이 4인 가족은 휴가차 디즈니월드를 찾았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숨진 아이는 네브래스카 엘크혼에 거주한 레인 그레이브스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 부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해변에는 “수영 금지”란 표판이 붙어있었지만 어린이는 수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물속을 거닐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제프 윌리엄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대변인은 밝혔다. 디즈니월드는 안전상을 이유로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 해변은 고급호텔인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 소속 해변이며 디즈니 월드의 매직 킹덤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인공호수이며 약 200에 이커의 면적이 최고 수심은 약 14피트에 달한다. 플로리다에 휴가차 방문중인 가족들은 이 인공호수에 왜 악어가 있는냐고 반응하는 등 악어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에는 약 1백만마리의 악어가 서식중이다.

사고 발생 후 약 50명의 경찰, 악어 추적전문가, 음향탐지기를 소지한 해병대등이 호수를 샅샅히 수색했다. 플로리다주 야생동물경찰은 호수에서 5마리의 악어를 잡아 해부했지만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악어중의 한마리가 아이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렌식 수사

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는 미국내 세번째로 많은 악어가 서식하는 곳이지만 치명적인 악어 공격은 흔하지 않다. 1973년 이래 383번의 악어 공격중 에 23명이 악어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망자중 2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8명이었다.

올랜드 게이 나이트클럽 총기난사로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한 가운데, 총격범이 디즈니월드를 테러 표적으로 삼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디즈니월드의 보안 경계는 대폭 강화된 상태다.

디즈니월드는 이번 사건 직후 리조트 내 모든 해변과 보트 정박지를 폐쇄했다. 이번과 같은 사고는 디즈니월드 역사 45년 만에 처음이다.

hsb@bostonkorea.com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디즈니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 & 스파의 인공호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디즈니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 & 스파 전경

## 디즈니 리조트, '악어조심' 경고 없어 "관리 충분했다"

### 이웃 호텔은 '악어 조심' 표지 세워 대비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디즈니월드 리조트에서 악어에 잡혀 호수로 끌려 들어간 아이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자 안전 관리와 관련해 디즈니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15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디즈니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 & 스파에서는 부모와 함께 휴가를 보내던 두살배기 남자 아이가 전날 악어의 공격으로 인공 호수 '세븐시스라군'에 끌려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리조트 안전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디즈니가 이용객에게 '악어 출몰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디즈니는 호숫가에 악어와 관련한 어떠한 표지판도 세우지 않았으며 '수영 금지'를 알리는 경고만 붙인 상태였다.

반면 디즈니 리조트와 이웃한

호텔 하얏트 리젠시 그랜드 사이 프러스는 '수영 금지' 문구와 함께 '악어를 조심하시오'라는 표지판을 세워 놓았다.

여기에 몇몇 리조트 이용자들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 호수에서 악어를 목격했다고 증언하자 논란은 더 커졌다. 해당 호수는 방문객을 태운 여객선이 운행해 오던 장소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5마리의 악어를 잡아 죽였다.

한 누리꾼은 "내가 부모였다면 디즈니를 고소해서 합당한 보상을 한 푼도 빠짐 없이 받아내겠다"며 분노했다.

미국 현지 경찰은 디즈니가 안전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즈니월드는 이번 사건 직후 리조트 내 모든 해변과 보트 정박지를 폐쇄했다. 이번과 같은 사고는 디즈니월드 역사 45년 만에 처음이다.

icef08@news1.kr

##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믿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등 수상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 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 올랜드 총격 사건, 3시간 반 광란 재구성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플로리다 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은 12일 오전 2시 전후로 시작됐다. 이 시각, 올랜드 다운타운에 있는 성소수자(게이) 전용 나이트클럽 '펄스'에는 200~300명이 흥겨운 라틴 리듬과 술에 취해 있었다.

오전 2시 조금 전에 아프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29)은 클럽 주차장에 밴 차량을 주차시켰다. '토요일 밤의 열기'는 주차장에서도 쉽게 느껴질 수 있었다. 뉴욕에서 태어난 마틴은 최근까지 올랜드에서 약 190km 떨어진 포트피어스에서 거주해왔다.

약 2시쯤, 마틴은 911에 전화를 걸어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충성맹세를 선언했다. 통화 중에 2013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폭탄테러를 벌인 차르나예프 형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짧은 통화를 마친 뒤 마틴은 준비해 간 AR-15 소총과 권총 한자루, 그리고 대량의 탄약을 챙겨 들고 클럽 쪽으로 가 방아쇠를 당겼다. 첫 총알이 발사된 것은 2시 2분쯤이다. 그리고는 클럽 밖에서 안으로 난사했다.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경비 업무를 맡아 총기 사용에는 능숙했다. 마틴은 클럽의 보안을 책임진 무장 경비들을 화력으로 압도했다.

클럽 안에서 다수는 음향 효과로 착각했다. 루이 버바노는 ABC방송에 처음에 총기 소음이 음향 효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절친이 나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며 바닥에 피와 술 등이 흥건해 클럽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DJ 중 한명인 레이 리베라는 뉴욕타임스(NYT)에 레게 음악을 틀고 있었는데 폭죽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불륨을 낮추고 소리에 집중했는데, 총소리를 깨닫고 달아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총격전이 벌어졌음이 분명해지자 내부는 아비규환이 됐다.

일부는 바닥에 엎드리고 화장실로 숨어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화장실에 있었다는 브랜든 울프는 현지 매체에 "총소리가 계속 났다"며 "총알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한센은 "밖으로 빠져나간 뒤에도, 총소리는 계속 들렸다. 경찰은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마틴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한 AR-15는 민간용 M-16 자동소총으로 다량살상에 적합한 총기여서 2012년 콜로라도 오로라, 2012년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2015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사건 때도 사용됐다. 플로리다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에서 구매가 합법이다.

클럽 측은 페이스북에 "모두 펄스에서 밖으로 나가 쉬지 말고 뛰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메시지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지 혹은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했는지는 향후 조사

를 통해 밝혀질 사항이다.

총소리가 나자 비번으로 현장에 있던 경관이 곧바로 대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다른 2명의 경관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전이 벌어지자 마틴은 클럽 내로 숨어들어갔다. 이로 인해 인질극 상황이 됐다.

경찰은 특공대(SWAT)와 무장차량을 현장에 급파했다. 내부에 있던 마틴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최초 총기 난사와 이후 인질극에서 마틴이 몇명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3시간 반 가까이 지속된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마틴은 클럽 내 숨어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희생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클럽 밖에서 아들 에디(30)를 기다리던 한 여성은 에디가 '화장실에 다른 사람들과 숨어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들이 "그가고 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문자가 "마지막 대화였다"고 밝혔다.

allday33@news1.kr



범행에 사용된 총과 같은 시그소어 MCX 자동소총



지난 21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미국총기협회(NRA) 행사 장면

## 美총기협회 "규제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못막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워싱턴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로비단체 미국총기협회(NRA)가 올랜드 총격사건 이후 총기 규제 움직임에 반기를 들며 "총기 규제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끝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리스 콕스 NRA 산하 입법행동 연구소(ILA) 소장은 14일 USA투데이 기고문에서 "극단적 이슬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의 자기 방어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없애 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반증으로 엄격한 총기 규제가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기에, 프랑스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콕스 소장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2013년 이후 올랜드 테러범 오마르 마틴을 감시 대상 명단에 올려 조사했지만 오히려 그가 정부가 인정한 보안 면허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바마 정부

의 지나친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이 이번 참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정치적 정당성이란 인종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언행을 최대한 피하는 원칙을 뜻한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총기 규제 강화를 다시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환상을 끊임 없이 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NRA의 입장은 미국 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올랜드 총격사건 이후 이를 만에 나왔다. 이 사건으로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다.

재임 기간 동안 총기 규제와 관련해 공화당 및 NRA와 대립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icef08@news1.kr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yton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점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 손영권 치과

###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美 10명 중 7명은 '트럼프 비호감'... 대권도전 이래 최악

### 트럼프 호감도 지난달 37%에서 29%로 8%p 하락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인 10명 중 7명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달 전 당 최종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오히려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70%를 기록해 지난달 여론조사 당시 60%에서 10% 포인트(p) 급상승했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대권 출마의사를 밝히기 직전 71%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이후 경선 과정에서는 줄곧 60%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달 37%에서 29%로 8%p나 하락했다.

특히 히스패닉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트럼프를 비호감으로 여겼다. 최근 멕시코계 연방판사에 대한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영향을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트럼프대학'에 대한 법적 소송을 담당중인 곤살로 쿠리엘 판사가 멕시코 혈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재판에서 쿠리엘 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트럼프는 "내 발언이 멕시코계에 대한 단정적인 공격으로 오해돼 유감"이라며 "나는 한 개인의 혈통이 그

사람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믿지 않는다"고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긴 부족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도는 55%로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2%p 상승했다. 호감도는 지난달보다 1%p 하락한 43%를 기록했다.

WP는 특히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1984년 WP-ABC가 주요 정당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마지막 '슈퍼화요일' 경선인 7월 캘리포니아 등 5개 지역 프라이머리가 끝난 직후인 8일부터 12일까지 시행됐다. 다만 대부분의 조사가 플로리다 올랜다 총격테러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이에 대한 여론

의 반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호감도 하락의 우려에 직면한 건 트럼프 개인만이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공화당에 대한 호감도는 32%로 2009년 11월 여론조사를 시행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49%로 공화당과 17%p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를 담당한 조사원 J 안 셀저는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공화당과 다른 공화당 정치인에 대한 인식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누가 공화당의 정치적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5%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꼽았으며, 31%는 트럼프를 가리킨 반면 '어느 누구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3%로 상당히 높았다.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지명하는 것이 공화당에 해로운 것이라는 답변은 60%에 달했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15일 뉴욕증권 거래소 전광판에 재닛 옐런 미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이 방송되고 있다

## 美연준 6월 기준금리 재동결

### 인상 시점 안밖하며 "고용 개선속도 늦다...경제 완만 팽창"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2%에 그쳐"...3개월 전보다 전망 하향 '브렉시트' 우려도 작용한 듯, 美연론 "올해 2차례 인상 가능성 남아"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의 불확실한 고용 상황 등에 대한 우려로 연방 기준금리가 15일 또 동결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사회(Fed·연준)는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올해 4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발표된 저조한 고용 동향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의 가능성 고조, 경제성장의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올해 언제 금리인상을 단행할지 시사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지난 4월 이래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고용시장 지표가 점진적이지만 강해지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의 개선 속도가 늦

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또 이날 연준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약 일주일 뒤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결의 큰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준은 이날 회의 후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당초 석달 전 예상치인 2.2%, 2.1%에 못미치는 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면서 올해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을 예고했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차례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올해 11월 8일 미국 대선까지는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7월, 9월, 11월, 12월이다.

shin@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SUMMER SPECIAL SALE EVENT

**Espresso Machine  
Grinder  
Real Fruits mix**



Torani Real Fruits Mix



Nuova Simonelli Espresso Machine



(New & Used: \$4,000-\$8,000)

## Café Business Consulting

**Café Coffee Shop & Ice Cream Shop  
Opening Turnkey Base / Business Consulting  
Interior Design / Free Estimate**  
장소선택, 상권분석, 종업원 채용, 바리스타 교육  
은행융자 및 장비리스 상담



**4계절 매출을 창출해 줄  
Cafe 비즈니스 아이템**

최고 품질의 거피 메뉴, 프루츠 스무디,  
리처드슨 아이스크림 및 샐러드 샌드위치  
패밀리 카페가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투자비용: 약 15만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망)

**Mr. Paul Son: bkcson@gmail.com | 781.704.4825**  
BKC Corp. 186 Cambridge Rd, Woburn, MA 01801

worshipfrontier.org/music-academy

**WF 뮤직 아카데미**  
Intensive Summer Music Academy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Worship Frontier Music 전문 음악 강사들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 수업진행방식:
  - 핵심적인 음악이론 공부와 악기레슨
  - 앙상블을 통한 실제적인 악기레슨
  - 기간동안 매주 별도의 한시간 개인레슨 제공
  - 배운 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공연예정(마지막주)
- 기간: 6월 30일(목) - 8월 18일(목), 매주 목요일(총8주)
  - 청소년반: 3:30pm - 6pm
  - 성인반: 6:30pm - 9pm
- 악기: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기타, 피아노, 보컬
- 강사: WF 전문음악인(버클리 및 타음대 BA 및 MA)
- 수업료: \$250

주관: Worship Frontier Music  
주소: 1310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등록 및 문의: 이여진(WF Music Academy Director)  
worshipfrontierfb@gmail.com Cell) 617,835,4888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180억 '횡령의 기술'...대우조선 8년간 감사 '0'

문구비용 부풀려 2734회 169억 챙겨...상품권 77억·부동산 75억·외제차 6대 5억

(부산·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가운데 전직 차장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공모자가 더 있는지와 배임금액이 더 늘어날지 등에 대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회사 돈 180억원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시추선사업부 전 차장 A씨(4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납품업자 B씨(34)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C씨(36)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1월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문구류와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거제시 모문구업체의 문구납품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30~50%씩 부풀려 2743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69억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그의 후임으로 온 직원이 물품 구매 내역과 실제로 들어온 물품, 과거 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다 발각됐다.

A씨는 회사 측이 감사에 나서자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퇴금 1억여원을 받아 챙겨나갔다.

회사 측은 올해 초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거제경찰서에 넘겨 수사지휘 했다.

경찰은 A씨가 잡적하자 지난 8일 부산 해운대 모처에 형사대를 급파, 동거녀와 함께 은신처를 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180억원 중 부산지역에 사우나 등 2건의 부동산 구입에 75억원과 6대의 수입차 리스 및 고가 시계 구입, 주식투자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체포당시 A씨의 은신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현금 5억1000만원과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24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수수료를 떼고 현금 화시키던 백화점 상품권 77억원,부동산

75억원, 증권10억, 고급외제차 6대(아우디, 제규어,인피니트 등) 리스대금 5억7000만원등을 확인했다.

또 증권회사 6곳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8년이나 회사돈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회사측은 한 차례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년동안 범행을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점과 차장급이 이같은 거액을 빼돌린 정황에 대해 의문점이 많아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기소 전까지 공모자가 더 있는지와 배임금액이 더 늘어날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gleek63@news1.kr




경남거제경찰서가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A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시가 10억 상당의 명품들

## Hammond Residential


###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칼린)



617-981-1542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Umi Cho (추 우미)



508-641-8924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NE 17 - JUNE 23, 2016

## Give into your cravings with this kimchi stew!

무더워진 여름 날씨에 입맛을 돋우고 침샘을 자극하는 화끈한 맛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김치찌개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Share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p>Purple Sweet Potato Hawaii 보라색 고구마 <b>\$1.99</b> lb.</p>	<p>Ataulfo Mango 아틀포 망고 <b>\$10.99</b> box</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b>\$1.49</b> lb.</p>	<p>Packed Garlic 팩 마늘 5cnt/pkg. <b>2\$3.00</b> pkg./for</p>	<p>Lotus Root 연근 <b>\$1.99</b> lb.</p>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36's <b>\$5.99</b> ea.</p>	<p>Ginger 생강 <b>\$0.99</b> lb.</p>	<p>Sun Gold Kiwi 썬골드 키위 <b>\$22.99</b> box</p>	<p>Nagaiimo 일본 마 <b>\$3.99</b> lb.</p>	<p>JINGA Tofu 진가네 두부 All Varieties/16oz. <b>\$0.99</b></p>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U.S.D.A. CHOICE</b> FRESH FRI/SAT/SUN ONLY 17/18/19 ONLY Beef Rib Eye Steak 꽃등심 스테이크 <b>\$15.99</b> lb.</p>	<p><b>FROZEN</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크용 냉동 삼겹살 <b>\$4.99</b> lb.</p>
<p>Bone-in Pork Loin Chop 돼지 갈비 등심 목찜 <b>\$2.99</b> lb.</p>	<p>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b>\$2.49</b> lb.</p>
<p><b>U.S.D.A. CHOICE</b> FRESH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흉두께 <b>\$6.99</b> lb.</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별집 등심 스테이크 <b>\$6.99</b> lb.</p>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Chilean Cooked Mussel Meat 칠레산 냉동 홍합살 150-250's <b>\$3.99</b> lb.</p>	<p><b>FROZEN</b> Scallop 냉동 조개 판자 80-100's <b>\$6.99</b> lb.</p>
<p><b>FROZEN</b> FRI/SAT/SUN ONLY 17/18/19 ONLY Salted Mackerel 자반 고등어 <b>\$3.99</b> lb.</p>	<p>TONGTONGBAY Mackerel Pike 통통배 The 맛있는 공치 11oz./pkg. <b>\$2.99</b> lb.</p>
<p>WEST BAY Squid Rings 웨스트 베이 오징어링 1 lb./pkg. <b>\$3.99</b> lb.</p>	<p><b>FRESH</b> FRI/SAT/SUN ONLY 17/18/19 ONLY Bronzini 브론지니 <b>\$5.99</b> lb.</p>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카가야키 쌀 15 lbs. <b>\$19.99</b> Smart Card Only</p>	<p>대전 김 선물세트 DAECHUN Roasted Seaweed Laver All Varieties - 0.7oz. x 10ea./box <b>\$10.99</b> Smart Card Only</p>
<p>빙그레 멜로나 BINGGRAE Melona Ice Bar All Flavors - 2.71oz. x 8bars/box <b>\$3.99</b> Smart Card Only</p>	<p>올가리 밸리 유기농 우유 ORGANIC VALLEY Organic Milk All Varieties/6.4fl.oz. <b>\$3.99</b> Smart Card Only</p>

### H MART NOW HAS AN APP & REFRESHED WEBSITE!

THE H MART APP IS NOW LIVE, DOWNLOAD IT AND VISIT OUR REFRESHED WEBSITE FOR ALL H MART SALES, PROMOTIONS, AND EVENTS.

H마트의 각종 세일 아이템과 할인 쿠폰들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H마트 모바일 앱과 더욱더 보기 편리해진 웹사이트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p>오!그레인 유기농 퀴노아 O!GRAIN Organic Quinoa <b>\$4.99</b> Red/Black/1 lb.</p>	<p>CJ 햇반 박스 CJ Cooked White Rice 7.4oz x 12ea./box <b>\$14.99</b></p>	<p>HAIOREUM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해오름 메밀국수 3 lbs. <b>\$4.99</b></p>	<p>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 소스 16.7fl.oz. <b>\$3.99</b></p>	<p>AJINO MOTO Hondashi Bonito Soup Stock 아지노모토 혼다시 1.32 lbs. <b>\$9.99</b></p>
<p>해오름 만두 HAIOREUM Dumpling Bukkkyung/Kimchi/Veg. - 2.65 lbs. <b>\$4.99</b></p>	<p>해오름 상성 게맛살 HAI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2.2 lbs. <b>\$3.99</b></p>	<p>CHORIP DONG Seasoned Wild Filefish 조림등이 왕위포 10.58oz. <b>\$5.99</b></p>	<p>KTOWN Seame &amp; Coconut Cracker 케이타운 고소액 5.71oz. <b>\$0.99</b></p>	<p>시라키쿠 라무네 음료수 SHIRAKIKU Ramune Drink All Flavors/6.76fl.oz. <b>\$0.99</b></p>
<p>하겐다즈 아이스크림 HAAGEN-DAZS Ice Cream All Flavors/141oz. <b>\$2.99</b></p>	<p>KINGSFORD Match Light Charcoal 킹스포드 매치 라이트 자를 11.6 lbs. <b>\$9.99</b></p>	<p>플라스틱 특계반 Round Plastic Basket XXL/ea. <b>\$6.99</b> <del>-\$11.99</del></p>	<p>MICROBAN Slip Resistant Cutting Board 마이크로벤 위생도마 CB-FL-S29/ea. <b>\$3.99</b> <del>-\$9.99</del></p>	<p>타이거 전기 밥솥 TIGER Elec. Rice Cooker &amp; Warmer JNP-1800/10cups - ea. <b>\$119.99</b></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 정세균 "개헌, 의지의 문제...20대 국회 전반기에 해야"

"상시청문회법 국회법 절차대로...이같은 취지의 법안 법제화 돼야"

"의장 직권상정, 국가 국민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을 것"

"국회의원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특정 시기를 한정하긴 어렵지만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했으면 하는 희망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정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단지 개헌 논의가 지금까지

돼왔기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매듭지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자문기구 수준은 의장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특위는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 의지를 피력하기보다는 교섭단체와 의논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데 역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국회법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법대로 하겠다"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을 대신해서 해

야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있고 그것이 입법 취지"라며 "저는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같은 취지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돼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써야할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강조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헌법을 처음 만들 때와 1987년 개헌할 때의 시대상황이 지금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당연히 특권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심지어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 구성원 중에는 환경미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되신 분들"이라며 "빠른 시일 내 이분들을 직접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 평화 · 민주주의 등의 위기는 늘어나고 있다. 저는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3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바로 그것"이라며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건 딱 한가지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NO'(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playingjo@news1.kr



정세균 국회의장

## 김종인,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에 "중단 조치 취해야"

더민주 안전행정위원장들, 16일 광화문 농성장 방문 예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해 "이 시장이 단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박용진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종걸 의원에게 "이 시장이 단식을 그만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행위원들과 논의해 법적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선미 의원 등 당 안행위원들은 내일(16일) 서울 광화문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 이 시장을 찾아 격려한 바 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김 대표가 이 시장의 단식에 대해 계속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이 시장의 의견은 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전망대에서 6·15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통일 염원 리본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회적으로 충분히 전달된 데다 이제 20대 국회 원구성이 된 만큼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찾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 손혜원 · 표창원 등 더민주 몇몇 의원은 전날(14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이 시장을 찾아 당 차원의 대응을 약속한 데 이어 이날에는 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 시장을 격려 방문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 시장을 만나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복지정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까 많은 여성이 걱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한다"며 "국회와 당 차원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의 합리성을 제대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 유승민 · 윤상현 귀환... 與 무소속 7명 '일괄복당' 허용

혁신비대위, 토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 "당 통합 이루라는 총선 민의 받는다"

(서울=뉴스1) 김영신, 김정률 기자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가 16일 탈당 ·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복당'을 허용했다.

혁신비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복당 문제를 논의,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참석자들 간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복당, 선별복당, 차기 지도부로 논의 이양 등을 두고 서다.

감론을 끝낸 비대위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중 일괄복당 의견이 과반인 6표가 나와 더이상 개표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표결 전 토론에서 찬반이 갈렸지만 일괄복당 의견이 우세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비대위는 "당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라는 4·13 총선 민의를 받들고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괄 복

당을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도 밝혔다.

4·13 총선 이후 강길부 · 안상수 · 유승민 · 윤상현 의원 등 4명이 곧바로 복당 신청을 했고, 주호영 · 장제원 · 이철규 의원은 아직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상욱 대변인은 "입당 신청을 한 4인에 대해 입당이 승인된 것이고, 나머지 무소속 당선자가 입당을 신청하면 이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복당문제 해결이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라 판단했다"며 "복당되신 분들은 당의 통합과 화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비대위는 당부한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당신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진로 위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저희가 그 길의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넘기며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강한 정신력과 높은 이상을 개발시킬 것입니다. 미육군에서는 그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인 프로그램까지 제공해드립니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공을 위한 길의 첫 걸음을 미육군과 함께 하십시오. 자녀를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강한 미육군으로 키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800-USA-ARMY의 미육군 신병모집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거나 [goarmy.com](http://goarmy.com)의 "FOR PARENTS"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WESTWOOD ARMY CAREER CENTER**  
372 Washington Street, Westwood, MA  
SGT Casey McNally Tel. (781) 251-0122  
[www.facebook.com/sgt.mcnally](http://www.facebook.com/sgt.mcnally)



# 고품질의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ASC : Boston's #1 ESL School (F1 Students 환영)

CSI 학생이  
트랜스퍼할 경우 10% 할인  
WhatsApp us Now  
617-407-2536



1

- ESL Class (6 Levels)
- TOEFL
- Public Speech
- Idioms
- IELTS
- Business English
- Daily Conversation

2

ASC가 특별한 이유! 아래의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Regis College	Endicott College	
New York Film Academy		

3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Pathways Program** ASC Pathways Program에서 level 5 이상을 이수하시면 BS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http://www.ascenglish.com)

©2009. Paid for by the United States Army. All rights reserved.

# 롯데 '해외비자금' 정황 포착...日계열사·페이퍼컴퍼니 동원

### 원료 수입하며 계열사 끼워넣기... "비자금 목적이면 한국법인도 공범" 페이퍼컴퍼니 '로베스트'도 수사대상... 中 쇼핑업체 인수 등도 대상

(서울=뉴스1) 김수완, 구교은 기자 =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나 스위스 소재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계열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액을 넘겨준 정황을 포착했다. 롯데케미칼 측이 통행세를 없애준 일본 계열사는 일본 롯데물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협력업체의 홍콩법인을 통해 부타디엔, 열분해가스(Py-Gas) 등 특수고무나 석유 관련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계열사를 끼워넣었다. 화학원료 수입과는 관련없는 회사들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 명목의 이익을 챙겨줬다는 것이다.

그 동안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끼워넣기'를 이용한 다른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여러 차례 받았다.

현금인출기(ATM) 서비스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의 경우 ATM기 1500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어 41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기공 부당지원 혐의로 지난 2012년 롯데피에스넷에 6억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에서도 이같은 끼워넣기 수법을 이용한 부당지원을 포착해 지난 13일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등을 포함한 10개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부당지원 과정에 관여한 롯데케미칼 협력업체 A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법인은 한국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통행세를 안겨줬다면 처벌이 안 되지만 일본 계열사로 비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일본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또 일본 모기업과 관련된 지배구조나 일본 계열사의 회계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 롯데그룹 측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지난 10일 미국 화학업체 액시올(Axioll Corporation)사 인수를 포기했다. 하지만 액시올사와 합작해 에틸렌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은 유지해 14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검찰은 또 신격호 총괄회장(94)이 스위스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로베스트 AG와 롯데그룹 간의 수상한 거래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로베스트는 신 총괄회장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 측으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베스트 AG 역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 소유로 볼 수 있는 회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

는 로베스트 AG는 롯데물산의 지분 6.9%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2010년 5월 로베스트가 보유한 롯데물산 주식 64만여주를 3만8982만원에 사들였다. 또 호텔롯데와 롯데미도파, 롯데역사도 같은달 로베스트가 보유한 롯데물산 주식 64만~152만주를 주당 3만8982만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당시 롯데물산 1주의 가격은 1만6443만원대로 형성돼 있어 역시 신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부당한 '웃돈'을 얻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몰아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계열사를 통해 중국 흡소핑업체 등 해외 기업 10여 곳을 인수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롯데쇼핑이 지난 2010년 인수한 중국 흡소핑업체 럭키파이는 지난해 409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롯데자산개발 역시 중국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자산개발은 중국 청두 쇼핑타운 등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롯데역사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동원돼 자금을 지원했다.

abilitykl@news1.kr



검찰이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그룹 계열사 10여 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에서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 롯데그룹 전방위 압박하는 검찰... 압수수색만 '40여곳'

### 본사·총수일가 집무실도 겨냥... 그룹차원 증거인멸 정황도 발견 제2롯데·해외거래 의혹도 조만간 수사... 핵심임원 줄소환 예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이 지난 10일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나흘만에 계열사 1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롯데그룹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에 나섰다. 현재까지 롯데그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소만 40여곳에 달하며 정책본부 관계자들도 연일 줄소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와 주요 임직원 사무실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린 롯데그룹 계열사는 롯데알미늄,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코리아세븐,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의 부여호텔리조트·제주호텔리조트,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 10곳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대흥기획 등 계열사 6곳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종착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 역시 정조준했다.

검찰은 첫 압수수색 당시 신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롯데그룹 본사 26층 집무실

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부터 우선 찾아갔다. 또 그룹 본사 내 신 총괄회장의 '비밀공간'을 찾아내 금전출납자료를 확보했으며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이모 전무의 처제 집에서 현금 30억원과 서류를 발견하기도 했다.

◇전방위 압수수색 배경에는 조직적 증거인멸 과심죄도 한몫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한 과심죄가 더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롯데그룹 임직원들이 검찰수사를 앞두고 서류를 자택으로 빼돌리거나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14일 2차 압수수색 당시에도 일부 임직원들이 서류를 무더기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가 진행하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관련 수사에서도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롯데그룹을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부 들여다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배일에 싸인 지배구조를 이용해 각종 횡령·배임 등 비리를 '관행'처럼 저질러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들만 해도 ▲계열사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와 그룹 본사·계열사 간의 부동산 거래과정 의혹 등 '옛날식'의 기업운영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자택,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전무 등 정책본부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계열사를 통한 부외자금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매년 100억원대, 200억원대의 자금을 각각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들은 배당금이나 급여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자금의 성격을 파악 중이다.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16곳 외에 다른 계열사들도 대부분이 연루돼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내부거래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은 2014년 7월 무렵 보유하고 있던 롯데상사 지분을 할값으로 롯데쇼핑 등에 매각해 계열사 간 자산 부당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주호텔리조트는 지분 가치를 저평가해 상장을 앞둔 호텔롯데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각각 받고 있다.

◇정치권로비·조세포탈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

총수 일가와외의 부동산거래 의혹에는 롯데상사,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제과 등이 연루돼 있다. 롯데상사는 공시지가 200억여원 수준에 불과하던 신 총괄회장의 인천 계양구 목상동 토지를 504억여원에 매입했으며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는 신 총괄회장의 충북 충주시 목행동 소재 토지를 100억여원에 사들였다.

또 제2롯데월드 건설·인허가 관련 정치권 로비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 의혹, 중국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조만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이 스위스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로베스트'는 부외자금 형성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또 신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중국 흡소핑업체 등 해외 기업 10여 곳을 인수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인원 부회장(69) 황각규 정책실장(61·사장) 소진세 대외협력담당(66·사장) 등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계획이다.

abilitykl@news1.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립라, 코랄지 펄,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기분을 갖고 있는 계층,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교육/도매  
**홍은희**

# 김수민 "공천헌금 · 리베이트 없었다" 의혹 정면 반박

'리베이트 의혹, 업계 관행 아니다' 지적엔 '묵묵부답'

(서울=뉴스1) 박응진, 서미선 기자 = 4·13 총선 후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은 15일 "공천 헌금이 없고 리베이트 또한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성실히 답변해 왔다고 생각하고, 검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언론에 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천헌금과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억원에 리베이트를 주고, 재하청을 하는 이런 부분은 브랜드 업계의 관행도 아니다"라는 전날(14일) 이상민 브랜드앤컴퍼니 대표의 지적

과 관련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지적은 김 의원 측의 해명을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워크숍 뒤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뒀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리베이트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4·13 총선 후보비 리베이트 의혹 자체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민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상돈 '檢, 김수민 기소하면 망신...공천 조사안해'

"통장에 2억원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니"

'당직자가 체크카드 사용 · 입찰 아닌 수의계약? 각종 의혹 해명'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선관위 고발사건 진상조사단'(가칭) 단장을 맡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4·13 총선 후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수민 의원 등을 기소하면 "검찰이 망신 당할 거라고 본다.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국민의당TF'로 규정한 '브랜드호텔TF'가 2억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한다는 가정하에 이처럼 밝혔다. 브랜드호텔TF에는 김 의원 등이 참여했었다.

이 의원은 "그걸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 상식에 벗어나는 걸로 본다"고 강조했다.

브랜드호텔로 2억원이 흘러간 데 대해선 "일을 한 부분"이라며 리베이트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통장에) 들어온 돈(2억원)도 그대로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과정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최고위원, 특히 다른 대표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도 전략공천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전략공천의 경우 공천심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진상조사단에서는 김 의원의 공천과정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솔직히 30대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긴 과정인데 30대가 되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괜히 청년표를 얻기 위해서 청년들을 들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인 김경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홍입니다'에 출연해 "범죄혐의 규명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내부자 고발인지 아닌지, 또 내부자 고발이라면 이 사람을 색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당 법률위원회는 리베이트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의혹이 차례로 김 의원의 공천과정,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당장 약력 등 정적력 문제, 계과갈등 등 당 내부 등으로 문제가 번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당직자가 체크카드를 받아 썼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인물은 당직자가 아니라 브랜드호텔과 연계돼 일한 프리랜서로, 당사자가 체크카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개입찰이 아닌 브랜드호텔과 수의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선 애초에 입찰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parksj@news1.kr

## 檢, '김수민 리베이트의혹'에 자금성격 규명 초점

대표 등 업체관계자 소환조사...일부 출국금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4·13 총선 후보비 리베이트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업체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한편 후보회사 브랜드호텔이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브랜드호텔이 받은 자금이 리베이트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우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브랜드호텔이 받은 자금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수사 중"이라면서 "(자금이 당까지 흘러갔는지는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인사를 포함해 의혹에 관련된 수명을 출국금지하고 대표를 포함한 업체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인사는 김 의원과 같은당 박선숙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관련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홍보물 제작 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선거홍보와 관련한 TF(태스크포스) 팀 관련 업무를 총괄처리하며 김 의원, 왕 부총장과 사전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들이 불법정치자금 2억3820만원을 수수하기 위해 사전 논의 및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다음날인 9일 해당 인쇄·광고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의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과 선거공보제작 A업체,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총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업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TF팀원 명의로 6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최연소 당선자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됐으며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13일 4·13 총선 후보비 리베이트 의혹규명을 위해 이상돈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자체 진상조사기구인 '선관위 고발사건 진상조사단'(가칭)을 출범시켰다.

ysh@news1.kr



검찰 '김수민 리베이트' 피고발인 출국금지...업체 관계자 줄소환



#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마카오농부, 서울설렁탕의 미인, 국밥,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Fax: 617.505.6771  
www.BeeffortheSoul.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MA 02114  
Tel: 617.575.8888  
Fax: 617.575.8888



#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7 - 8/5**  
Courses, SAT Prep, Competition Math  
가을학기 시작 9/6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http://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김형진**  
781-956-0409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단독주택 Single Family**



**\$ 625,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40 sf.  
타운안 최고의 위치, 새부엌,  
마루바닥, 지하 Playroom  
이현주 401-935-3397



**\$71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880sf.  
잘 꾸며진 play room, sundeck  
3zone Heating/ 2 zone Air  
이현주 401-935-3397



**\$1,049,000**  
**Acton, MA**  
4 Beds, 4 Baths, 3652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Gina Choi 978-866-3248



**\$1,149,000**  
**Lexington, MA**  
5 Beds, 2.5 Baths, 2,907sf.  
최고의 학군, 대중 교통  
조용하고 편리한 환경  
신보경 508-361-6064

**단독주택 Single Family Condo Rental**



**\$349,900**  
**Framingham, MA**  
3 Beds, 2 Baths, 1,750sf.  
Fenced Large Back yard,  
Updated Interior  
Steven Son 617-290-0623



**\$649,900**  
**Andover, MA**  
4 Beds, 2.5 Baths, 2,377sf.  
좋은 학군, 조용한 환경  
아름답고 넓은 정원  
Janice Lee 978-806-6023



**\$325,000**  
**Acton, MA**  
2 Beds, 1 Bath, 1,107sf.  
넓은 대지 (0.36 Acres)  
좋은 학군, 새 건축에 좋은 기회  
Anna Jung 617-780-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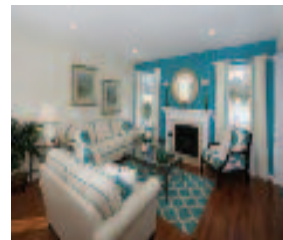


**\$1,500 /mo.**  
**Arlington, MA**  
가구가 완비된 스튜디오,  
캠브리지 옆, 편리한 교통,  
조용하고 안전한 주택가  
Hazel Seung 617-895-7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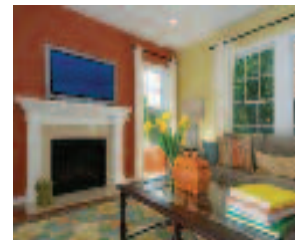
**Condo Rental New Construction**



**\$1,835/mo.**  
**Brighton, MA**  
1 Beds, 1 bath, 609 sf.  
전철역 (Green Line) 인접  
Wholefoods Market  
Steven Son 617-290-0623



**콘도/타운하우스/단독주택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Boston, MA**  
**Downtown Crossing**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New Star 781-259-4989

**Condo Rental**  
**\$2,200/m**  
**Allston, MA**  
2 Beds, 1 Bath, Garage parking  
Steven Son 617-290-0623

**APT Rental**  
**\$1,000/m. utility포함**  
**Wilmington, MA**  
2 Beds, 1 bath, 1,200 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Single Family**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Michael Yun 617-459-5985

**Condo Rental**  
**\$2,000/mo.**  
**Waltham, MA**  
2 Beds, 2 bath, 1,060 sf.  
Shell Yu 781-526-2416

**Condo Rental**  
**\$2,200/mo. Luxury Condo**  
**Allston, MA**  
2 Beds, 2 bath, 850 sf.  
Steven Son 617-290-0623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http://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http://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00% / 2009년 100% / 2010년 100% / 2011년 100% / 2012년 100% / 2013년 100% / 2014년 100% / 2015년 100% / 2016년 100%



**스티븐 손**  
617-290-0623



**박성종**  
617-304-7001



**Steve Yoo**  
617-386-3451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Pick-up Cleaners	Pick-up Cleaners	Full Plant Dry Cleaner	Full Plant Dry Cleaner
			
\$70,000 Wakefield, MA Busy Street, 넓은 주차장 w/ CVS, 은행 & hair salon Anna Jung 617-780-1675	\$149,000 Waltham, MA 바쁜 몰 안에 위치, 성업중 확장가능 스티븐 손 617-290-0623	\$280,000 연매상 \$300k I-495 근접 경험필요 대부분 새기계, 은퇴 매각 탄탄한 단골, 보장된 수입구조 스티븐 손 617-290-0623	\$159,000 I-95 inside, MA 많은 포텐셜, 대부분 새 기계 정확한 매상과 기록 스티븐 손 617-290-0623

Deli & Mea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150,000 Brockton, MA (Busy Mall) 2,200 sf. Lottery/ cigarette 연매상 \$900,000 25년간 운영 Anna Jung 617-780-1675	\$500,000 Harvard Square (Cambridge)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120 Seat Capacity Anna Jung 617-780-1675	\$499,900 Brookline, MA Including Liquor Licence 5000 sf. 180 Seat Capacity Anna Jung 617-780-1675	\$120,000 연매상 \$180k I-95/128 근접 성업중인 한국식당, 은퇴매각 Wine/Beer Permit, Low Rent 스티븐 손 617-290-0623

Nail Salon	Nail Salon	Nail Salon	Restaurant
			
\$150,000 Burlington, MA 스타벅스 옆, 10M/10P ATM, 60 inch TV 4대 포함 Anna Jung 617-780-1675	\$250,000 Lexington, MA 1,850 sf. 넓은 주차공간 좋은 위치, 고급 시설 Anna Jung 617-780-1675	\$110,000 Cambridge, MA Porter Square 400sf.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850,000 <b>Reduced</b>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성업중인 안정된 식당 SJ Park 617-304-7001

Investment	Restaurant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Restaurant
\$495,000 Boston, MA 아주 볼비는 위치 SJ Park 617-304-7001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프랜차이즈**

한국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셋업 무료상담  
SJ Park 617-304-7001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 패트리어츠 미니캠프의 스타 선수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여름 휴가 기간을 앞두고 패트리어츠의 스프링 미니캠프가 한창이다. 미니캠프에서는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기본기를 다지고 전술적인 감각을 익히는데 주력한다.

미니캠프에서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연습을 하며, 선수들 사이의 몸싸움도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미니캠프에서는 와이드 리시버들의 활약이 눈에 띄며, 패싱 게임 위주로 연습이 진행된다.

부상과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주전 선수들이 많이 불참한 패트리어츠의 미니캠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스타 선수들을 살펴보자.

## Chris Hogan

일부 패트리어츠의 리시버들이 깜짝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지만, 크리스 호간만큼 꾸준한 선수는 없다. 물론 주전 리시버인 줄리안 에들먼과 대니 아멘돌라가 오프시즌 중 수술로 인해 미니캠프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간이 더 빛날 수도 있다.

호간은 3일간의 미니캠프에서 18번의 패스를 받았고, 팀 드릴에서 단 한번도 받은 패스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멋지게 장거리 패스를 받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 공격에서 확

실한 공격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호간은 지난 5년의 프로 풋볼 선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적이 없다. 그러나 패트리어츠의 공격에 다양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 Aaron Dobson

지난 여러 시즌에서 보여줬듯이 6월에는 아론 답슨이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한 손으로 패스를 받고, 여러 수비수를 따돌리기도 하며, 사이드라인 가장 자리에서 멋지게 패스를 받는 모습 등을 미니캠프에서 보여주고 있다.

답슨은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로 평가 받았지만 한번도 제대로 실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부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늘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만 했다. 답슨은 훌륭하게 재기할 수도 있고, 이대로 패트리어츠를 떠날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답슨은 미니캠프에서 단연 돋보이는 리시버다. 가장 많은 패스를 받고 가장 빠른 몸놀림을 선보이며, 순발력과 점프력도 발군이다. 프리시즌에 답슨이 보여주는 모습을 정규시즌 경기에서도 볼 수 있다면 답슨은 패트리어츠 공격의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는 선수다.



2016 시즌은 아론 답슨에게 패트리어츠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다

## Cyrus Jones

루키 수비수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사이서르 존이다. 존은 스타 코너백인 말콤 버틀러와 로건 라이언과 함께 경쟁하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존은 수비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스페셜 팀에서도 펀트 리터너로 연습

하고 있다. 펀트 리터너는 에들먼과 아멘돌라가 맡았던 역할이지만 두 선수 모두 미니캠프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존이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어쩌면 베테랑 리시버들이 해왔던 포지션을 이번 시즌부터는 존이 차지할 수도 있

다. 팀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가 우선 순위를 두고 존을 드래프트에서 선택했을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 추신수, 2루타 포함 멀티히트 맹활약...김현수 7G 연속 출루

(서울=뉴스1) 나연준, 권혁준 기자 = '추추 트레인'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첫 2루타를 비롯해 멀티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팀의 역전승에 기여했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안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연속 출루 행진은 7경기로 늘렸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빅리그 최고 강속구 투수 중 한 명인 노아 신더가드(뉴욕 메츠)와의 맞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삼진 3개를 당하면서 부진했고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도 4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다.

추신수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O.co 콜리세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오글랜드 어슬레틱스와 경기에서 1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복귀 후 3번째 경기에서 시즌 첫 2루타를 비롯해 멀티히트로 맹활약 했다. 볼넷도 2개를 추가하면서 4출루 경기를 완성시켰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74에서 0.231로 상승했다. 이는 이번 시즌 추신수가 기록한 가장 높은 타율이기도 하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소니 그레이의 4구째 85마일 슬라이더에 헛스

윙 삼진을 당했다. 하지만 3회초 추신수는 그레이의 95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가볍게 좌측으로 밀어 쳐 안타를 신고했다.

0-5로 끌려가던 텍사스는 6회초 선두타자 로빈슨 치리노스의 솔로포로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그레이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측 담장에 맞는 2루타를 만들었다. 추신수는 계속해서 터진 이안 데스몬드의 적시타로 득점까지 올렸다.

텍사스는 6회초 홈런 2개와 추신수의 2루타 등으로 대거 5점을 뽑아 5-5 동점을 만들었다.

추신수는 7회초와 9회초 볼넷을 골라내면서 4출루 경기에 성공했다.

텍사스는 홈런 4개를 때려내면서 7-5로 오글랜드에 역전승을 거뒀다. 2연승을 달린 텍사스는 아메리칸리그에서 가장 먼저 41승(25패·서부지구 1위)째를 달성했다.

김현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2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무안타 1사구를 기록했다. 타율은 0.333에서 0.319로 떨어졌다.

전날 경기에 결장했던 김현수는 하루 만에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보스턴의 너클볼러 스티븐 라이트에게 고전, 4경기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연속 무안타에 머물렀다.

그러나 김현수는 몸에 맞는 공을 얻어내 출루에 성공했다. 김현수는 지난 8일 캔자스시티 로얄스전에서부터 7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김현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라이트의 3구째 75마일 너클볼에 맞고 출루했다. 김현수는 2사 후 도루를 시도해 최초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판정이 아웃으로 번복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김현수는 1루를 밟지 못했다. 3회초에는 2루수 땅볼, 6회초에는 삼진을 당했다.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됐다.

볼티모어는 4-6으로 보스턴에 패했다. 이날 패배로 볼티모어와 보스턴은 나란히 37승 27패가 되면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공동 1위가 됐다.

yjra@news1.kr

# ACN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고객 절약 사례>**  
 본점: 20% 절약  
 매지랑: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65  
office.lk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기쁨의 길입니다 (행 13:18)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찬양 / 경오봉부예배 / 생전부요행  
Grace Bible Study / 수 12시 | LIFE 모임 / 주일 10시

담당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당목사: 박일종

주: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체부: 임성경 목사  
유년부: 임경숙 목사  
유소: David Moon 권도사  
영남/360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CHRISTIAN CHURCH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2시
주일 학교	오전 2시
경도인 공부	오전 4시
목요 공부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열립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25, (978) 944-2404  
www.bostonchristian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aj.usgt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함께 하신 말씀에 영유함이 부끄러우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모하며, 그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끄러움에 영유함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예배 주일오후 12:30  
속회예배 수-주일 속회별  
유년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2it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필요할 때 **이선호**  
781.266.7245

## 보스톤 장로교회

### 전덕영 원로목사 추대 및 장성철 목사 위임예배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전덕영 목사의 은퇴와  
미래 세대를 위해 나눔과 섬김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장성철 담임목사의 위임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려고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6년 6월 26일 오후 6시  
장소: 보스톤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 50~60대에 부는 동안 성형 “나도 젊어지고 싶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리본성형외과' ...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통해 50~60대 중년층의 고민 해결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노화로 인해 바뀐 인상을 젊어 보이게 도와주는 눈썹거상술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50대이상의 중년층에서도 성형수술을 안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

이번 휴람 의료정보는 휴람 네트워크병원 리본성형외과를 통해 50~60대에 부는 동안성형 바람에 대해서 알아본다.

쌍꺼풀수술, 코성형, 가슴수술, 안면윤곽까지 자신의 콤플렉스를 없애려는 젊은이들이 성형외과를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형수술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일까? 그렇지 않다. 성형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50~60대 중년층에도 동안성형 바람이 불고 있다.

노화로 인해 피부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처지게 되면서 인상도 변하게

된다. 눈가피부의 노화가 시작되면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썹의 위치가 밀려 내려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 파곤해 보이거나 답답한 인상을 줄 수 있게 된다. 눈꺼풀 처짐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워지고 눈을 크게 뜨려고 하는 습관으로 오히려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어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된다.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기전에 조기교정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많이 찾는 수술이 눈썹거상술이다.

◎ 대표적인 동안수술 - 눈썹거상술: 눈썹거상술은 눈썹 윗부분이나 눈썹 아래부분을 절개하여 늘어진 근육과 조직을 당겨 고정하는 수술법으로 눈썹 윗부분을 절개할 경우와 눈썹 아래부분을 절개할 경우 두가지 방법 모두 눈썹부위에 절개를 하므로 절개선이 가려져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수술과는 달리 수술시간은 1시간 이내이고 1주일 안쪽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눈썹거상술은 쌍꺼풀을 원하지 않고 처진 피부를 개선하고 싶을 경우, 쌍꺼풀 모양의 변화를 원치 않는 경우, 속눈썹이 눈썹을 찌르는 경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눈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

도 인상이 바뀌게 된다. 노화로 인해 인상이 바뀌어서 고민이 많던 분들에게 눈썹거상술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 처진 얼굴 해결 - 리프팅: 동안을 위해 중년층이 많이 하는 다른 수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톡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톡스란 근육을 풀어주어 주름을 없애거나 할 때 사용하는 시술로 젊은 층에서 날렵한 턱선을 원할 때 사각턱 부위에 시술을 주로 받고, 이마, 미간, 눈가 주름등을 펴기 위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받고 있다.

눈썹거상과 함께 가장 많이 찾는 시술은 역시 리프팅일 것이다. 중년층이 노화로 인해 처진 눈을 상안검, 눈썹거상으로 해결한다면 처진 얼굴은 리프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리프팅 시술은 얼굴에 의료용 녹는 실을 삽입하여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이다. 리본성형외과 박재현원장은 “동안수술로 알려지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리프팅 시술은 1시간정도면 시술이 끝나며 과거에 시행되던 수술과 달리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여 절개하거나 실밥이 없어 회복기간이 짧으며 흉터가 잘 보이지 않고 남을 위

험성이 적은 시술이다” 고 전하며 “리프팅 시술을 안전하며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에게 시술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히 가격을 기준으로 병원을 고르기보다는 믿을 만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덧붙였다.

리본성형외과의 한 관계자는 “리본성형외과 박재현 원장님은 27년동안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면서 한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전을 위해 전문의료로만 구성된 의료진과 철저한 사전 수술적합도 검사 및 꼼꼼한 위생, 소독관리를 하고있다” 라고 전했다.

얼굴라인의 시작이며 자연스러운 동안 이미지를 연출시키는 이마 성형



이마 미용 성형의 창시 및 10년이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휴람 네트워크리본성형외과의 이마보형물 삽입술은 이마에 실리콘보형물을 삽입하여

볼륨감있고 자연스러운 이마라인을 연출해 준다.

리본성형외과의 이마성형술은 개개인의 이마 모양에 맞도록 제작된 맞춤형 보형물을 사용한다. 이마 보형물 삽입술은 △ 이마가 납작한 경우, △ 한쪽이 움푹 패인 경우, △ 이마가 울퉁불퉁한 경우, △ 이마가 밋밋하고 넓은 경우, △ 이마가 너무 좁은 경우, △ 눈썹뼈가 튀어나온 경우 등에 주요 권유한다.

리본 이마 성형의 포인트는 △ 헤어라인에서 눈썹까지의 거리가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한다. △ 위에서 아래로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져야 한다. △ 꺼지거나 한쪽으로 솟은 부분이 없도록 적당한 볼륨을 가져야 한다. △ 양옆쪽은 볼륨한 곡선을 그리며 입체감을 가져야 한다.

이마보형물 삽입술은 이마 위쪽에서 절개하여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는데 헤어라인 안쪽에서 절개되므로 수술후에 흉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성형에 관한 궁금증이나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고국병문 김신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T.617-955-9112**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위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해-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이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업술)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절개쌍꺼풀	매몰쌍꺼풀	얼굴지방이식 (PRP포함)	코성형
770만원 <span style="color: red;">↘</span>	880만원 <span style="color: red;">↘</span>	220만원 <span style="color: red;">↘</span>	220만원 <span style="color: red;">↘</span>	198만원 <span style="color: red;">↘</span>	110만원 <span style="color: red;">↘</span>	275만원 <span style="color: red;">↘</span>	330만원 <span style="color: red;">↘</span>
<b>550만원</b>	<b>660만원</b>	<b>132만원</b>	<b>132만원</b>	<b>121만원</b>	<b>88만원</b>	<b>165만원</b>	<b>264만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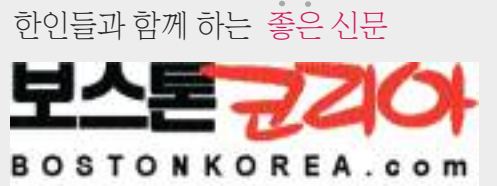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티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칼 케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증제도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미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교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교양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대사추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탈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인간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미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978-844-2404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루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안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사온감리교회	401-739-8439
781-534-3394	
시온교회	617-620-3352
열방교회	978-274-2369
에이여 베델교회	781-549-6495
엘화이트 한인장로교회	413-549-9200
엘화이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위미아누엘 연합교회	978-514-3399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주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660
뉴비즈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순옥유니미용실	508-734-044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미용실(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735-3109
이경애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정미용실	508-249-5838
프루멘셜(이호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멘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승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븐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부동산	
뉴스타부동산(손준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운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유니부동산	508-734-044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비부동산(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735-3109
이경애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정부동산	508-249-5838
프루멘셜(이호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더팬시마켓	617-298-2260
매일찬치마시	781-862-7984
보스턴피시	617-282-2980
브룩린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킴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603-882-8644	
617-566-8888	
781-272-3787	
781-860-0171	
508-587-3920	
603-889-0055	
617-492-6700	
978-897-5107	
617-973-6680	
781-648-8878	
617-206-3229	
860-895-8739	
508-647-0495	
617-731-5200	
617-325-9919	
617-731-1122	
781-643-4175	
617-254-8888	
617-868-0982	
617-623-7220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상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란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켄지스치과	617-4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매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세탁소에서 프레스, 헬퍼, 딜리버리 하  
실 분 구합니다. (남녀노소)  
T. 617-840-1833

중고 공업용 미싱 샵니다.  
T. 781-595-9241

**Nail Salon for Sale**

8 Tables, 8 Chairs, 1 Bar  
Price: \$300K  
Location: Plymouth  
T. 774-269-4361 (Kieth)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세탁소에서 운전 / 프레스 하실 분  
각각 1명 구함.  
T. 978-806-1881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NAIL SALON for SALE**

I'm looking to sell my nail salon and waxing salon. I'm looking for an owner that has the drive and the experience when they are taking over my salon. This is an excellent prime location and busy in Newton Center.

PLEASE CONTACT:  
**Khim**  
978.327.8491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7  
Hrabc11@gmail.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견사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 '함부로 애뜻하게' 포스터 공개 김우빈 · 수지, 눈빛만으로 압도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배우 김우빈, 수지, 임주환, 임주은의 '함부로 애뜻하게' 포스터가 공개됐다.

KBS2 새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뜻하게'(극본 이경희/연출 박현석, 차영훈) 측은 14일 네 주인공의 극중 이미지를 알 수 있는 포스터를 선보였다.

최고 한류 배우 겸 가수인 신준영 역의 김우빈은 사연을 드리운 표정이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의미심장한 표정과 우수 어린 눈매가 "난 열심히 도망쳤는데 니가 아직 여기 있는 거다"라는 문구와 어우러지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수지가 연기하는 다큐 PD 노을은 정의감은 돈 앞에 고이 접어 두고 강자 앞에 한없이 허약한 캐릭터다. "정말로 날 좋아하는 거라면

나 어떡해야 돼요?"라는 문구와 함께 카메라를 두 손에 쥔 채 멀찌감치 김우빈을 바라보는 수지의 모습이 얽혀들었다.

금수저 완벽남인 KJ그룹 기획총괄 본부장 최치태 역의 임주환은 감정을 절제하는 눈빛을 짓고 있다. 강력 대권 후보인 아버지, 대대로 장관과 국무총리를 배출해낸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이아몬드 수저' 윤정은 역의 임주은은 시크하고 강렬한 느낌을 펼쳐냈다.

'함부로 애뜻하게'는 어린 시절 악연으로 헤어진 남녀가 안하무인 톱스타와 속물적인 다큐 PD' 로 다시 만나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오는 7월6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ppbn@news1.kr



## 송강호X공유 '밀정'. 9월 개봉 확정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김지운 감독의 신작이자 송강호와 공유 두 배우의 최초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밀정'이 개봉일을 확정 짓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스틸 11종을 최초 공개했다.

14일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에 따르면 영화 '밀정'은 오는 9월 개봉한다. '밀정'은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숨막히는 암투와 회유, 교란 작전을 그리는 작품이다.

앞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해의 포스터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스틸 11종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저마다의 선택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먼저 어둠 속을 걸어가는 두 남자, 일본경찰이 정찰과 의열단 리더 김우진의 뒷모습은 시대가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두 사람이 왜 동행하게 됐는지,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함께 모여 거사를 논의하는 의열단원들의 모습에서는

은밀하고 긴박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정보를 캐는 조선인 일본 경찰 이정철과 이정철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접근한 의열단의 새로운 리더 김우진으로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 든 송강호와 공유 두 남자 뿐만 아니라 핵심 여성 의열단원 연계순 역의 한지민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또 이정철과 함께 의열단 검거 작전에 투입된 또 한 명의 일본 경찰 하시모토 역의 엄태구, 의열단의 자금책임자 김우진의 죽마고우인 조희령 역 신성록의 모습까지 담아낸 '밀정'의 스틸은 일본 경찰과 의열단으로, 시대의 양 극단에서 있는 드라마틱한 운명을 지닌 인물들로 변신한 배우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들이 활약했던 무대인 경성과 상해의 다채로운 공간까지 함께 눈길을 끌며 '밀정'이 보여줄 깊이 있는 드라마와 스타일리시한 1920년대의 풍경을 기대케 한다. 이처럼 '밀정'은 오는 9월 추석 극장가에서, 관객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강렬한 드라마를 선사할 예정이다.

aluem\_chang@news1.kr

## 손예진 '덕혜옹주', 티저부터 뜨거운 관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 영화 '덕혜옹주'가 티저 예고편을 공개한 후 이어지는 예비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영화를 향한 기대감을 입증했다.

오는 8월 개봉하는 '덕혜옹주'는 일본에 끌려가 평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역사가 있고 나라가 감춰던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덕혜옹주'는 지난 13일 티저 예고편을 공개하자마자 타 영화의 영상을 제치고 '많이 본 무비클립'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네이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티저 예고편 하나 만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모아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공개 당일 온라인상에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면서 예비 관객들은 실제 덕혜옹주의 삶에 대해 찾아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덕혜옹주'는 주요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의 개봉 예정 영화 일간 검색어 1위 자리까지 놓치지 않으며 2016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자리매김했다.

티저 예고편을 본 예비 관객들은 예고편에 대한 열렬한 응원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무



엇보다 섬세한 연출의 대가인 허진호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덕혜옹주'는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오는 8월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덕혜옹주'에는 배우 손예진, 박해일, 라미란, 정상훈, 안내상, 백윤식 등이 출연한다.

aluem\_chang@news1.kr

## '굿 와이프' 전도연, 커리어우먼으로 돌아왔다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배우 전도연의 안방극장 복귀작인 '굿 와이프'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다.

tvN 새 금토드라마 '굿 와이프' 제작진은 14일 전도연의 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티저 포스터를 살펴보면 전도연은 한쪽 손을 허리에 올리고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당당한 포즈로 남다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다. 별다른 꾸밈 없이 전도연의 눈빛만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압도한다.

극 중 전도연은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약하게 되는데, 커리어우먼의 시크한 매력과

치명적인 섹시함이 함께 묻어나 더욱 눈길을 끈다.

제작진은 "포스터는 강인하고 여유 있는, 비밀을 간직한 여자의 모습을 콘셉트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도연은 짧은 시간만에 김혜경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해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해냈고, 포토그래퍼 최홍빈과의 완벽한 호흡으로 10분여만에 포스터 촬영을 완성했다. 전도연의 프로다운 면모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굿 와이프'는 오는 7월8일 첫 방송된다.

reddgreen35@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6월 6일 ~ 2016년 6월 12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8.7%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19.3%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8.0%
4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6.5%
5	KBS1	KBS9시뉴스	16.0%
6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6.0%
7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4.8%
8	KBS1	전국노래자랑	14.0%
9	KBS2	해피선데이	13.8%
10	MBC	무한도전	13.3%

##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2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3	SBS	TV소셜(내 마음의 꽃비)
4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5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6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7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8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9	tN	디어마이프렌즈
10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가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지카파
02	CHEER UP	TWICE
03	쏘쏘	백아연
04	자격지심 (Feat. 은하 Of 여자친구)	박경 (블락비)
05	하늘바라기 (Feat. 하림)	정은지
06	Monster	EXO
07	D (half moon) (Feat. 개코)	DEAN
08	Good Luck	AOA
09	RE-BYE	악동뮤지션
10	Illusion	Dok2

## 숫자 퍼즐 (Sudoku)

		8	5	2			7	9
4		9			3			
		2				1		5
				4				3
2			8	1	7			4
6				5				
5		4				2		
			2			4		7
7	2			6	1	9		

6월 19일 - 6월 25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상황이 유리하게 바뀔</b></p> <p>●운수: 빨리 결정하면 할수록 상황이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망설이다가는 모처럼 온 기회가 그냥 지나갑니다. ●금전: 크게 남는 것은 없지만 고객 만족도는 높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거나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애정: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9, 23일 길일. 20, 21일 주의.</p>	<p><b>소띠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b></p> <p>●운수: 어떤 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서 큰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 나가는 것에 비해서 들어오는 적겠습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운세이니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함께 한 것이 별로 없다는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20,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범띠   자식의 성장을 인정해주고</b></p> <p>●운수: 언제까지나 품안의 자식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의 성장을 인정해주고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금전: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 지나고 보면 일장춘몽입니다. ●애정: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1, 25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토끼띠   보상이 따라주는</b></p> <p>●운수: 나무꾼이 금도끼를 안겨주는 산신령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운세입니다.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금전: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주는 때입니다.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 편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용띠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b></p> <p>●운수: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사업가는 큰 계약이 성사됩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때이니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 다른 시선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나쁜게만 보던 속에서도 좋은 면을 찾게 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뱀띠   스스로 잘 행거야</b></p> <p>●운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마무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조심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좋지만 믿거니 하고 다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잘 행거야 합니다. ●애정: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괜한 오해를 해서 상대를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말띠   전화위복의 기회를</b></p> <p>●운수: 위기라고 생각할만한 상황이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금전: 무조건 아끼는 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이득과 연결될 것입니다. ●애정: 한 필의 비단을 짜는데 꼭 있어야 하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와 같습니다. 때려야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 끈이 강해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양띠   새로운 희망을</b></p> <p>●운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현실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금전: 에너지 없는 장사는 없지만 적당히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깎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애정: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의 본성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니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2, 25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원숭이띠   그때그때 빨리 풀어야</b></p> <p>●운수: 힘들 때일수록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 친한 사람과 돈거래를 하지 마세요. 돈거래로 인한 손해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애정: 그때그때 빨리 풀어야 합니다. 작은 불만이 쌓이다보면 나중에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닭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b></p> <p>●운수: 모든 것이 순조로우니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됩니다. 힘들어도 견디면 결국은 상황이 좋게 바뀌고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웬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처럼 집안으로 온풍이 불어오니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4일 길일. 23, 25일 주의.</p>	<p><b>개띠   절약 정신이 필요한</b></p> <p>●운수: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니 잠시 미뤄주세요. ●금전: 절약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딱히 필요 없는 것을 사게 되거나 평상시에 안 사던 것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크든 작든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5일 길일. 23, 24일 주의.</p>	<p><b>돼지띠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는</b></p> <p>●운수: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금전: 여러모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서나 사적인 일에서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3, 24일 길일. 19, 25일 주의.</p>

# 박유천 고소 취하...성폭행 포함 안되는 '친고죄' 무엇?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그룹 JYJ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친고죄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을 고소한 유흥업소 직원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 이에 성폭행일 경우 친고죄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성폭행이 아



니라고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라 경찰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유천 또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어 앞으로의 행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편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A씨의 고소 취하

사실에 대해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또한 무혐의 입증에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tar@news1.kr



# 음악대장 하현우, '복면가왕'서 국카스텐 신곡 특별 공연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하 음악대장)이 '일밤-복면가왕'에 다시 돌아왔다. 앞서 음악대장은 20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장르 파괴자, 인간 소화제, 막힘없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 성대 등 수많은 수식어를 남긴 바 있다.

국카스텐 하현우가 '복면가왕'에서 스페셜 무대를 펼쳤다.

하현우는 12일 오후 4시50분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서 국카스텐 멤버들과 함께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하현우는 지난 20주간 '우리동네 음악대장' 복면을 쓰고 '복면가왕'의 가

왕 자리에 장기집권했다. 가왕에서 내려온 참가자가 다시 스페셜 무대를 갖는 건 이례적인 일로, 최초 9연승을 이룬 '음악대장' 하현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날 국카스텐은 신곡 'PULSE'를 열창했다. 하현우는 정든 음악대장 복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변함없는 가창력을 뽐냈다. 무대 후 하현우는 "복면가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신곡을 꼭 이 무대에서 들려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hjk0706@news1.kr

# 유해진 '삼시세끼' 고정 확정..고창서 합류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배우 유해진이 '삼시세끼'에 합류했다.

tvN '삼시세끼 고창편' 제작진은 13일 "새 시즌의 배경은 전라북도 고창이다. 이전 시즌 멤버인 유해진도 고

정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영화 스케줄로 인해 이번 시즌 출연이 불투명했던 유해진은 '삼시세끼'에 함께 하기 위해 직접 영화 제작사에 양해를 구하며 스케줄을 조정했고, 뒤늦게나마 촬영장에

극적으로 합류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새 촬영지인 고창에서 이전 시즌의 정선, 만재도와는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reddgreen35@news1.kr



천지보설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 Sales Representative Wanted

Japanese Food Wholesaler needs a full time sales rep to maintain and expand restaurant accounts in the Greater Boston area.

Qualifications:

- Able to speak English
- Able to speak Korean, preferred
- Able to be respectful to customers, co-workers and management
- Competent dri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 Good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 Able to pass a drug screen
- Able to lift heavy product items from time to time weighing as much as 50 lbs.
- Familiar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Green Card sponsoring may be possible>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B - 007 - LMBB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정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백희' 강예원X진지희, 新 모녀의 탄생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돌아온 '백희'는 강예원-진지희 모녀를 낳았다. 교과서처럼 살가운 모녀 관계는 아니었지만 둘의 '케미'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지난 14일 종영한 KBS2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에서는 배우 강예원, 진지희가 각각 양백희, 신옥희 역을 맡아 모녀 관계로 열연했다.

'백희가 돌아왔다'는 한국판 '맘마미아'다. 딸은 자신이 모르는 엄마의 과거, 자신의 친아빠를 찾으며 성숙해지고 엄마는 첫사랑을 만나 다시 사랑에 빠진다. 딸에게선 어른스러운 면을, 엄마에게선 소녀 같은 감성을 발견하는 마법 같은 이야기다. '백희가 돌아왔다' 속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서로 티격

태격하고 싸우느라 늘 목청을 높였지만 결국은 그 안에 녹아 있는 진한 유대감이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다. 그 줄기엔 강예원, 진지희의 '모녀 케미'가 있다. 팔심은 데 팔 나고 백희 심은 데 옥희 났다. 불과 4회였지만 강예원-진지희 모녀가 낳긴 여운은 얼마간 지속될 듯하다.

hjk0706@news1.kr

티보플레이 6월 2째주 시청률 BEST10

1	SBS	내 사위의 여자
2	KBS	아이가 다섯
3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4	KBS	별난가족
5	MBC	좋은사람
6	MBC	아름다운 당신
7	MBC	내일도 승리
8	MBC	가화만사성
9	CJ E&M	디어마이프렌즈
10	MBC	그래그런가야

티보플레이 6월 2째주 신규 방송

1	SBS	당신은 선물
---	-----	--------

티보플레이 6월 2째주 최신 영화

1	탐정홍길동 사라진마을
	이제훈, 고아라

### '엄마야' 미스코리아 모녀 등장 맞선남들 촉각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모녀 미스코리아가 '엄마야'에 등장한다. 최근 진행된 S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엄마야' 녹화에는 미스 전남 출신 엄마와 미모를 물려받은 미스 USA 출신 딸이 출연했다. '엄마야'는 엄마가 직접 맞선에 나서 딸과 남자친구를 맺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녹화 당일 시카고 출신 엄

마가 등장하자 모두들 유달리 젊은 외모에 눈을 떴지 못했다. 딸에 대한 정보가 숨겨진 '비밀의 방'에는 오래된 수영복 하나가 있었다. 시카고 엄마는 "제가 미스 때 입었던 수영복이다. 사실 8년도 미스 전남 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딸 또한 2014년 USA 출신이라고 털어놨다.

ppbn@news1.kr

5월 31일 불타는 화요일 밤 11시 10분

엄마야

오즘 엄마들과 신개념 소개팅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stan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ww@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 1. Full Plant 풀리너 + 백싱턴에 위치, 부종산 교차로 \$1,399,000 **SOLD**
- 2. Full Plant 세막스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막스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공백** 4. Full Plant 세막스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5. 드림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6. 드림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턴-인근 일터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8. 렌트 : 701 Harvar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altham **SOLD**
- 10. Condo : 20 Hesser st, unit 1, Win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33-35 Baker St., Boston **SOLD**
- 12. 비빌리움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3 Full Bath, 3,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 14. Condo : 47 Hess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NEW LISTINGS**



**콘도 세일**

47 Gorham St, Unit 1 Allston  
2 Bed 1 Full bath, 좋은 위치,  
2017년 레인지퍼피스 있음.

**UNDER AGREEMENT**



**렌트**

12-18 Ellery St, Unit 600 Cambridge  
2 Bed 2 Full bath, 하비드 eq. 세터 있음  
Rent include heat, hot water,  
car removal, one assigned parking.  
8월 1일 입주 가능.

**월 \$3,000**

**NEW LISTINGS**

First open house  
6/10, 6/11 Sat & Sun 1pm to 2:30pm.

**Single Family**

6 Sleeps Way Easton  
4Bed 2.5Bath 3,000 sq. ft. 1.7 Acre  
Out-door hot tub,  
Asking **\$1,159,9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Price Reduced**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Price Reduced**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5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미 중, 남부 '인문학 기행'을 다녀와서...

지난 5월 말에 <재미 수필문학가 협회> 주최로 한국에서 오신 박현영 교수님과 고경숙 사모님을 모시고 30여 명이 미 중, 남부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다. LA에서 많은 분이 오시고 애틀랜타와 보스턴 그리고 하와이와 아부다비에서도 오셨으니 참으로 그 열성이 대단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른 아침 만나기로 한 약속으로 나는 하루 일찍 떠나 정한 숙소에서 묵고 다른 몇 분들도 하루 일찍 오신 듯 싶었다. 그러나 LA에서 오신 분들은 밤 비행기를 타고 이른 아침 시카고에 도착해 모두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그렇게 시카고 대학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해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 1899.7.21~1961.7.2)의 생가를 방문하며 참으로 긴 시간 여행을 했다. 헤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 서부 교외 오크 파크(Oak Park, village adjacent to the western side of the city of Chicago in Cook County, Illinois), 노스 오크 파크 439번지에서 출생했다. 그의 생가를 방문하며 그의 생애 동안의 작품들을 잠시 떠올려 보았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작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와 <킬리만자로의 눈> 등이 있다.

그렇게 버스로 이동하며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30명이 다 되는 작가 선생님들 중 내가 제일 연소자에 속하니 다른 분들은 이순(耳順)을 거의 다 넘기신 분들이시다. 그런데 어찌 저리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작은 사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 깊은 사고와 감성 그리고 헛되지 빠트리지는 이성에서의 고뇌를 알기에 저토록 맑고 밝은 표정과 환한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 싶었다. 여러 글쟁이 선생님들을 뵈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함께 있는 내가 가슴 벅차도록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과 흑인문제를 빠트리질 수 없는 것이 미국 중부에서 남부를 지나며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토록 참혹했던 미국 노예제도를 끝내고야 말았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취임사를 다시 되새겨 보자.

"우리는 적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비록 긴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들 사랑의 유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하고 연설했기에 지금까지도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연설은 '명연설'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년 2월 12일~1865년 4월 15일)은 1861년 3월부터 암살된 1865년 4월까지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내부적 위기로부터 나라를 이끌어 벗어나게 하는 데 성공하여 연방을 보존하였고, 노예제를 끝냈다. 당시 미국 서부 변방의 개척지에 사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부를 학교에서 배우기 보다는 혼자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일리노이 주 의원이 되었고, 미국 하원의원을 한 번 했지만,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두 번 실패하였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자상한 남편이었고 네 아이의 아버지였다." --<위키백과> 참조.

여행 중에 만난 또 한 사람, 그 분은 다름 아닌 1963년 그가 워싱턴 D.C.의 링컨기념관 앞에서 20만명이 넘는 지지자들에게 행한 연

설인 "I have a dream"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였다. 그는 흑인에 대한 차별과 그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 그리고 평화공존에 대한 그의 소망과 신념을 담은 유명한 연설이 되었으며 1964년 그는 비폭력주의 저항운동에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연설 마무리에서 Free at last,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침내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 중, 남부 '인문학 기행'을 다녀오면서 참으로 숨이차도록 벅차오르는 꿈틀거리는 가슴을 누를 수가 없었다. 지금 나는 자유한가. 그리고 나는 다른 이에게 자유로움으로 있는가. 하고 내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었다. 그토록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소망하고 이루고 싶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차별에 대한 자유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말이다. 아니, 나 자신은 지금 그 어딘가에 편견의 눈과 목소리로 있지는 않은가. 또한, 편견을 넘어 아직도 그 누군가에게 차별에 대한 자유를 스스로 묶어두지는 않았는가. 하고 묻는 오늘이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채식주의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여름의 문턱을 넘어섰다. 찬물에 밥을 말아 오이지와 먹어도 점심으로 그만 일게다.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상관없겠다. 그것도 아니면, 상추에 밥을 싸서 크게 한입 먹어도 좋다. 산사山寺에서 먹는 공양도 크게 다르지 않을터. 게다가 서늘한 여름날 저녁이면 그림이 살아난다. 마당에 평상을 펴고 저녁을 먹는다면 소찬이라도 낭만일게다. 겸손한 밥상은 온전히 채식주의자로 만든다.

여름에는 저녁을/마당에서 먹는다  
밥그릇 안에까지/가득 차는 달빛  
아! 달빛을 먹는다

초저녁에도/환한 달빛  
(오규원, 여름에는 저녁을)

오래전 내 직장 상사의 이야기이다. 한식이 대중화 되려면 세월이 필요할 때였다. 그는 스스로 채식주의자라 했던 사람이다. 대신 장소와 음식에 따라 까다로운 선별적 채식주의자였다. 그와 이따금 한식이나 일식으로 밥을 나눠 먹었다. 식사 중 그가 나를 자주 놀라게 했다. 그는 김치를 샐러드 먹듯 먹어 치웠던 거다. 맵지도 않나? 게다가 짠 짬장을 덩어리로 상추에 밥과 같이 올려 아구아구 먹어댔다. 짜지도 않나? 통마늘과 짬장에 게겉이 들린듯 싶었으니 말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누구도 쉽게 첫

가락을 쉽게 사용하지 못할 적이었는데, 그는 유연하게 수저를 사용할 줄도 알았다.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차라리 경멸하는 듯 했으니, 그도 마음만은 지독한 채식주의자였음에 틀림없다. 그런 그가 집에 돌아가면 그의 아내곁에 접근할 수 없었다 했다. 마늘냄새가 보통이라야 말이지. 끊을 수 없게 당겨대는 생마늘이여. 역시 한식에겐 생마늘인게라.

한국 소설가가 대단한 문학상을 받았단다. 장한 일인데, 제목이 재미있다. 채식주의자. 그런 그의 책에도 영어오역이 있었던 모양이다. '달리다 죽은 개가(식용으로)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 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다던가? 이런 말을 번역하기에 막막했을 게다. 번역은 원문과 사뭇 다를 것이 틀림없다. 서양에선 개고기를 알지 못하더니 적당한 말도 없을 것이다. 상황과 원문이 이렇진대, 정확한 말은 커녕, 번역은 당최 쉽지 않았을 게다. 또

있다. 닭도리탕을 'a thick chicken and duck soup' 으로 옮겼다 했다. 그래도 번역이 옳네 그르네 할 것도 없지 않다.

다시 옛 직장 상사이야기이다. 그는 소주를 즐겨워 했고, 소맥 폭탄주를 즐겼다. 소맥을 과전과 입맛다시며 먹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막걸리를 권했다. 한모금 맞본 그의 말에 모두 넘어갔다. '웬 요구르트.' 그런 그 사람과 닭도리탕은 같이 나눠 먹은 적은 없다. 역시 채식주의를 고집했으니 말이다. 나 또한 손에 물려가며 닭다리를 뜯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글썄, 닭도리탕이란 말도 순수 한국말이라던데, 옳은 영문번역은 무엇인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17)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코수술, 코재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 아이앤지성형외과

- 1:1 개인 맞춤 시스템 —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이전 가임,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까지 맞춤서비스 제공
- 전문의 직접 진료 시스템 — 선두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관리까지 전문의가 주위에 직접 참여하여 최상의 직접 진료 시스템 운영
- 철저 안전관리 시스템 — 모든 수술 전 과정에 철저 관리하여 실재으로 피폭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실행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수술 후에는 지속적인 경과관리와 재수술과 내과, 피부과, 보톡스 등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끊임없는 교육 연구 시스템 — 선도적인 연구 활동 및 전문적인 학습활동으로 세계 각국이 인정 받은 의료 향상으로 최우선 목표

### 아이앤지 휴람이벤트

- ✓ 이마 실리프팅 ~~180~~만원 → **100**만원
- ✓ V라인 턱선 실리프팅 ~~150~~만원 → **70**만원 HOT
- ✓ 아이앤지 코성형 ~~250~~만원 / 아이앤지 코재수술 ~~350~~만원



**김지수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1989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 취득  
1992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3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4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5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6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7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8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9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쌍꺼풀 매몰**  
132만원  
→ **90**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 **20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 **280**만원

\* 부가세 별도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비유외 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가게오동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s.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6. 기숙학교를 통한 인디언 동화정책

### 인디언 정책의 변화

인디언에 대한 백인들의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버지니아나 매사추세츠 등 대서양 연안에서 백인들이 처음으로 정착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백인들이 인디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세로 인디언을 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백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정착민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디언과의 관계가 적대관계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절과 미국 독립국가 초기에는 크고 작은 충돌 속에서도 백인과 원주민이 함께 살았다. 특히 이른바 문명화된 5개 부족은 백인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 백인들과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많은 동부의 인디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학교에서 신식교육도 받았다. 그 한 예로 하버드대학교 안에도 인디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인디언학교(Indian College)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고 뉴햄프셔에 있는 님트머스대학(Dartmouth College)은 원래 인디언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830년대 잭슨 대통령 시절부터는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동부의 땅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있고 또 붉은 피부색을 가진 인종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싫어져 인디언과의 동거정책은 분리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이 정책에 따라 체로키족을 포함한 수많은 동부의 인디언들이 그 악명 높은 눈물의 길을 따라 오클라호마로 쫓겨 갔던 것이다.

19세기 중반부터 명백한 운명을 외치며 백인들이 서부로 이주해 감에 따라 평원인디언과 서남부인디언 그리고 로키산맥 너머의 인디언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곧 땅을 뺏으려는 사람들과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백인 정부는 동서를 관통하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 이민 오는 백인들에게 농지와 목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강압적인 조약체결을 통하여 인디언의 땅을 빼앗았다. 특히 평원인디언의 경우에는 농경 부족이 아니고 들소나 사슴 등 야생동물에 의존하는 수렵민족이었기에 광활한 사냥터가 그들의 영토였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버리게 하고 백인방식의 농민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원주민의 드넓은 초원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계산에 따라 인디언보호구역으로 인디언들을 뿔뿔히 흩어 성민들에게는 농사법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은 학교로 보내어 인디언들을 백인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887년에는 동화정책(Assimilation Policy)을 한층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토지할당법(General Allotment Act)을 제정하여 부족공동소유의 인디언보호구역의 땅을 쪼개 개인에게 할당하여 인디언들도 백인 자영농민처럼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부족공동체의 해체를 도모하였다.

인디언 선각자들에 의한 인디언문화 회복을 위한 범 인디언 민족주의 운동과 일부 의로운

백인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1934년 소위 인디언 뉴딜법(Indian New Deal Act)이라고 불리는 인디언재조직법(Indian Reorganization Act)이 제정됨으로써 동화정책은 막을 내리고 인디언 문화를 수용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 인디언기숙학교(Indian Boarding School)

인디언기숙학교는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주로 종교단체가 설립 운영하였는데 방치된 옛 정부 또는 군용 시설 등을 개조하여 학교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학교의 제1교육목표는 인디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백인의 문화를 주입시켜 백인 주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집에서 매일 통학하는 경우에는 학습효과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들을 모두 기숙사에 수용하여 인디언 부족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기숙학교는 인디언보호구역내에 설치 되는 경우도 있었고 구역 밖에 설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디언보호구역 바깥에 설치된 첫 기숙학교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1879년에 프래트(Richard Henry Pratt) 장군이 비어 있던 군용시설을 활용하여 설립한 칼라일 인디언산업학교(Carlisle Indian Industrial School)이다. 프래트는 이전에 플로리다의 포트 마리온 감옥에 수감돼 있던 인디언들을 상대로 영어 등을 교육시킨 후에 햄튼보통농업학교(Hamp-

ton Normal and Agricultural School)에 입학시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경험을 살려 인디언만을 위한 칼라일산업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 학교는 1918년까지 운영되었는데 140개의 인디언부족으로부터 만 명 이상이 입학하였으나 정식으로 졸업한 학생은 158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를 본떠서 인디언 담당국은 15개 주에 걸쳐 26 개의 공립학교를 건설하였으며 종교단체들은 수 백 개의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인디언 기숙학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도 있었으나, 대체로 인디언의 입장에서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였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떼어내어 고유의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버리게 함으로써 인디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것을 잘못된 정책으로 보는 여론이 더 많았다.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숙학교들은 인디언들이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 칼라일 인디언산업학교(Carlisle Indian Industrial School)

설립자 프래트가 계획한 칼라일학교의 교육 목표는 한마디로 '인디언 안에 있던 인디언적인 것을 다 없애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Kill the Indian: Save the Man)' 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35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화랑은 위공魏公의 아들이다. 피부가 옥과 같이 부드럽고, 눈은 미소 짓는 꽃과 같고, 음률과 문장을 잘했다. 12살에 능히 모랑공의 부제가 되었다. 태후가 매우 사랑했다. 그 때 황화黃華, 숙명叔明, 송화松花 공주가 모두 공을 따라 배웠다. 공은 이에 숙명공주와 정을 통할 수 있었다. 그 때 태후가 왕의 총애를 홀로 받게 하고자 모든 일을 공주에게 받게 했는데, 왕은 동북의 누이인 관계로 사랑을 많이 하지 않았다. 공주 또한 그러했다. 공주의 아버지는 태종공昚宗公인데 그 때 상상上相으로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신하였다. 왕은 그래서 공주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공주는 총애를 믿고 스스로 방탕했다. 태자를 낳고 왕후로 봉하여지자, 더욱 꺼림이 없었다.]

이화랑은 1세 풍월주를 지낸 위화랑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화랑세기의 저자인 김대문의 고조할아버지이다. 위화랑의 아버지는 염신공(염신공)이며 어머니는 벽아부인이다. 벽아부인은 벽화부인의 어머니이다. 제21대 비처왕(소지왕)이 날이군에서 신라 제일의 미녀인 벽화를 데려올 때 그의 어머니도 같이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다. 이화랑은 어릴때 부터 시문詩文을 잘하는 영특한 미남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화랑도花郎徒로서 갖추어야 할 무예 실력 역시 결출하였다. 그래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능히 화랑도의 2인자인 부제의 자리에 올라 그 임무를 다하고 3세 풍월주 모랑공이 일찍 죽으면서 그의 뒤를 이어 4세 풍월주가 되었다. 젊고 잘생기고 문무를 겸비한 이화랑은 풍월주가 되는데 손색이 없었으며, 남도들 뿐만 아니라 궁궐의 많은 공주들도 그로부터 배웠다. 특히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의 딸들인 숙명, 황화, 송화 등은 항상 가까이서 지내면서 시문과 화랑도花郎道를 배웠다. 숙명은 지소태후와 태종공(이사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황화와 송화는 지소태후와 영실공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다. 지소태후는 삼촌인 입종과 결혼하여 진흥왕을 낳았고, 입종이 죽은 후 여러명의 남편을 두었으며 또한 많은 침신寢臣들도 있었다.

지소태후는 딸 숙명공주를 아들인 진흥왕의 비로 삼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진흥왕은 숙명공주와 동복남매인 관계로 왕비로 맞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며 그녀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다. 숙명공주 역시 그러하였다. 그래도 지소태후는 숙명을 왕비로 책봉했으며 그들

사이에서 정숙태자가 태어났다(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숙명을 왕비로 책봉한 기록이 없다). 정숙태자는 어릴때 죽었다. 그리고 사도 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동륜이 태자가 되었으며, 동륜은 보명공주의 치맛폭을 자주 풀려고 월담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동륜의 동생 사륜이 진흥왕의 후계자가 되니, 그가 제25대 진지왕이다.

지소태후의 남편이며(남편 중의 한 명이며) 숙명의 아버지인 태종공은 이사부이다. 삼국사기(권44)의 열전에 보면 이사부異斯夫를 태종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이사부는 지증왕6년에 실직주의 군주軍主가 되었고, 진흥왕2년에 병부령이 되었으며, 진흥왕6년에는 '국사' 편찬을 왕에게 건의했고, 진흥왕23년에는 가야가 반기를 들자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 당시 태종공은 상대등上大等(174)으로 있으면서 국사國事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진흥왕은 숙명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길 꺼렸고 사랑하지 않았지만 소홀히 대할 수가 없었다. 한편 숙명은 지소태후의 총애와 아버지 태종의 배경과 진흥왕의 묵인하에 스스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진흥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그녀 또한 진흥왕을 사랑하지 않았다) 방황한 그녀는 결국 궁에서

도망쳐 나와 이화랑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원광과 보리 두 명의 아들과 화명, 옥명의 두 딸을 낳았다. 원광법사는 신라의 불교사에 많은 족적을 남긴 대승大僧이고, 화랑도들의 수련계율인 '세속오계' 를 남겼다. 그리고 보리는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증조할아버지이다. 화명과 옥명 두 딸들은 진평왕(제26대왕)의 후궁이 되었다.

174) 원문에는 상상上相이라고 나와있다.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상대등일 거라고 본다. 삼국사기(권38)의 직관편(상)에 상대등을 상상上臣이라고도 불렀다고 나온다. 삼국사기에는 법흥왕18년(531년)에 이찬 철부哲夫가 상대등이 된 이후부터 진지왕 원년(576년)에 거칠부가 상대등이 되기까지 상대등 임명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사이에 이사부가 상대등이 되었고, 상상上相으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이종욱 역주해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주, 뉴욕 주, 매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채무 조정 (Debt Settlement)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의 생활은 일정부분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가 좋은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맞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월별 정산하여 정리하는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가구당 \$7,000 이상의 신용카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중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면 미국 가구당 \$15,600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내가 갚아가던 채무가 어느 순간 "갚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머릿속은 혼돈의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혼돈속에서 접하는 구제방안 중 하나가 채무조정 방안인데, 이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 낮춰주도록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낮춰진 금액은 채권자의 장부에서 정리되게 됩니다.

채무조정은 꽤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 변제, 독촉, 소송, 압류 등 여러가지를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학습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는 의뢰인들 중 간혹 타주에 위치한 채무조정 서비스를 하시면서 민사소송이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 칼럼을 통해 채무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1. 어떻게 채무조정 회사를 선택하는가?

채무조정회사는 단순히 감소율 실적만으로 평가되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10% 지급에 합의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10% 조정안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채무조정단계와 민사소송단계를 함께 총괄지휘를 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채무조정회사는 소송 전단계만 하고,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케이스를 중단시키고 고객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찾아 스스로 디펜스 하도록 합니다. 저희 오피스도 몇몇 채무조정회사로부터 자신 고객들의

케이스를 방어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우선은 변호사 윤리강령을 검토중입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고객이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 디펜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채무조정이란 내가 지고있는 채무를 원래의 조건에 맞춰 변제하기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재무구조에 맞춰 변제하는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채무자가 소득 혹은 자산 (동산/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제시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최대한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이를 채무조정회사의 특별구좌로 이체시켜 총 2~4년간 자금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자금 모아둔것이 상당량이 되면 채권자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조정회사에 법률팀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중단없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3. 채무조정은 누가 적합한가?

우선, 어떤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무담보 채무에 적합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등 다른 담보물이 설정되지 않은 채무입니다. 모기지, 차량 할부금등은 담보물이 있는 채무입니다.

두번째로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어야 합니다. 실직, 배우자 사망, 급작스런 지출, 수입의 현저한 감소, 자영업 매출 감소 등이 해당합니다. W-2근로소득자의 경우, 페이스업으로 부연설명이 가능하고, 1040 schedule C 자영업자의 경우, 어카운팅 재무제표 정리를 통해 부연설명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고 있는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미니멈 페이먼트를 요구하고 대신 어카운트를 살려두는데, 이것이 2개월이내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급성 자금경색으로 인한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급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면 채무조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4. 채무조정시 고려해야할 다른 사항은 무엇인가?

채무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줄

어든 채무 변제인데, 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서비스 비용: 채무조정은 무료가 아닙니다.

- 단기위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채무조정회사의 특별구좌에 자금을 일정부분 모아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채권자는 크레딧 뷰로에 리포트하고, 각종 연체료등 채납부분에 대한 이자가 붙게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 채무조정이 되면 크레딧 리포트에 "settled"라고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settled는 원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 채무조정으로 \$600이상 줄이게 된다면 이렇게 변제된 금액은 IRS에 소득분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때 과산상태라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변제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5. 채무조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로펌에서 제안하는 연관 서비스로는 과산보호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께 과산보호신청은 핵폭탄의 위력에 준하는 옵션입니다. 위력이 상당하지만 흔적도 상당합니다.

과산 변호사임장에서 무엇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보면 과산보호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트러스티 앞에서 공적 기록으로 공개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6. 채무조정 시기 광고는 어떻게 예방하는가?

스팸/스캠은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공신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보는 회사에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이후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할 때 무턱대고 뭉치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한번 더 서비스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광고를 보시고난 후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채무조정회사에서 먼저 전화하는 경우, 그들은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해 놓은 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대로 잘 싸여놓은 각본에 맞춰지게 될 확

률이 높습니다.

- 성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거짓입니다. 오직 채권자만이 채무조정에 응하고 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 일반 채무조정회사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이를 막아 설 수가 없습니다. 로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회사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소속 변호사가 이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7. 채무조정회사와 채무조정 로펌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채무조정하여 변제하는 목적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 채무조정회사는 서비스 비용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합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채무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돈을 채무자가 접근할 수 없는 구좌에서 관리하기에 목돈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채무조정 로펌은 동일하게 서비스 비용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합니다만, 순간순간 고려되어야 하는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서비스를 채무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나 콜렉션 에이전시에게는 상당히 신뢰감 있는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방어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간혹 이뤄지는 FDCEPA (공정채무추징수행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컴플레인하여 진지하게 경고하는 메세지도 전달하게 됩니다. 케이스가 채무조정하는 과정 중에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채무조정 로펌은 중단없이 그대로 대리하게 됩니다.

- 두가지 옵션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채권자본인이 스스로 채무조정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채권자본인이 정리하는것이 가장 비용대비 효용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제안을 받는 경우, 그러한 문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혹 채권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약속대로 지급을 이행하고 있다가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서명해야하는 서류를 잘 살펴보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36)

#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

최근 월스트리트 신문에 나온 두 개의 기사 내용과 일반 투자자가 제대로 하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기사는 “헤지펀드: 위협을 받고 있다. (Hedge Fund Star: We are ‘Under Assault’, WSJ, 5/12/2016)” 입니다. 헤지펀드는 돈 많은 부자만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비용은 투자액수에 매년 2%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합니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그야말로 투자전문가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투자비용을 부과합니다.

연중 헤지펀드 모임이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저조한 수익률 때문입니다. 헤지펀드에 중요한 고객(중국)이 말하기를 “헤지펀드의 90%는 투자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헤지펀드를 오랫동안 운용한 리온 쿠퍼맨(Leon G. Cooperman, Founder, Chairman and CEO of Omega Advisors)은 “헤지펀드를 계속 운용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회의장에서 말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투자보다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투자기관(Wall Street Journal analysis of data from research firms HFR Inc. and Morningstar Inc.)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6년 첫 분기에만 \$15 Billion이 빠져나갔습니다.

헤지펀드 투자를 포기하는 사람은 개인 부자들만이 아니고 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 AIG, 등 그리고 여러 주 정부 은퇴연금도 헤지펀드 투자를 포기한다고 신문에서 언급합니다. 헤지펀드 회의가 열리는 호텔에서 구두담는 사람은 20불 이상 받았던 팁(Tip)이 올해는 5불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분명 우리보다 투자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주식 대박 아니면 주식 실패 (Go Big or Go Home, WSJ, 3/11/2016)” 라는 제목으로 뮤추얼 펀드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언급한 기사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는 투자 위험성이 적은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개별적인 회사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뮤추얼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으로 여러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한 뮤추얼 펀드가 투자 위험성이 의외로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S&P 500 Index Fund)는 500대 기업에 투자합니다. 미국 500대 기업은 주식시장 전체의 80%를 차지하므로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비교해서 뮤추얼 펀드는 주식시장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500대 기업에서 수익률을 낼만한 회사에 집중해서 투자합니다.

풋남 뮤추얼 펀드(Putnam Equity Spectrum Fund)는 총자산이 \$1.8 billion입니다. 3월 말 현재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10개 회사에 투자된 비중이 77%입니다. 인덱스 펀드(S&P 500)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10개 회사 비중은 겨우 17%입니다. 10개 회사 중 한 회사인 디쉬 네트워크(Dish Network)는 회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가 이러한 투자 위험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시코이아(Sequoia) 뮤추얼 펀드를 운용한

펀드매니저 로버트 골드파브(Robert Goldfarb)는 벨리언트(Valeant) 약품 회사에 집중투자하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시코이아 펀드는 총자산 중에서 벨리언트 약품 회사에만 30% 이상을 투자했는데 벨리언트 주식은 87%나 폭락했습니다.

풋남 뮤추얼 펀드 회사는 이렇게 투자 위험이 많다는 것을 펀드 소개서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로 재정설계사가 하는데 “재정설계사는 매우 똑똑한(very educated and sophisticated)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재정설계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고객의 돈을 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재정설계사는 풋남 펀드에 고객의 돈을 투자하면 수수료로 약 6%를 받습니다.

인덱스펀드는 수수료도 없고 투자경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인덱스펀드는 뮤추얼 펀드와 비교해서 수익률도 80% 더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인덱스펀드는 분산투자가 쉽습니다. 인덱스펀드는 세금(Capital Gain)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인덱스펀드 투자는 간단(Simple)하기에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aik@newstarrealty.com

## 협상은 예스로 시작한다

오래전 메인 주의 작은 항구에서 사장이 지배인을 불렀다. 그리고 지배인에게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암소 50마리를 수송해 달라고 하는군” 지배인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운송하는 회사입니다. 살아 있는 암소는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사장은 “별써 예스로 대답했네. 그러니 방법을 간구해 보세”

지배인은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다. 돌아서는 지배인에게 사장은 “참, 그 암소들이 임신한 암소들이라고 말했었나?” 결국 그 작은회사는 임신한 암소들의 운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는 미동부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회사중에 하나로 성장했다. 후에 지배인이 사장에게 물었다. “왜 힘든 것을 알면서도 그때 손님에게 예스를 했습니까?” 그러자 사장은 “왜냐하면, 모든 거래는 예스에서 시작하니까.”

셀러중에 정부 감사관 출신이 있었다. 그 셀러는 평생 잘못된 것을 찾아서 보고하는 업무를 관장해 온 관계로 모든 주택 거래를 의심으로 바라 보았다. 바이어가 카운터 오퍼를 요구하면, 혹시 자신의 에이전트가 바이어와 짜고 자신을 골탕 먹이

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의 에이전트가 연락이 즉시 되지 않으면 저쪽과 협상 중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서 셀러는 “노” 를 자신의 방어책으로 썼다. 바이어의 어떤 협조요청도 “노” 로 일관했다. 결국 바이어가 지쳐서 계약파기를 결정하려 하였다. 이때도 셀러는 “그럴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쓰는 수작일 겁니다.” 셀러 자신이 고용한 에이전트마저 의심하는 상황에서 어떤 조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바이어가 셀러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해 왔다. 그제서야 셀러는 바이어의 요구가 수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협상을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는 게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 지지 않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참으로 불행하게 한다. 그래서 주택매매 기간중에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혹시 ‘내가 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노” 를 대답으로 준비한다. 그러나 사실상 협상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

시키는 행위이다. 나의 “예스” 가 동시에 상대의 “예스” 이기도 한 해결책을 간구하는 것이 협상이다.

“예스” 로 대답한 의뢰는 항상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노” 로 답한 의뢰는 협상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도 “네, 물론입니다” 로 하루를 시작해 본다.

###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www.BoKoMart.com



**LA CENA 후라이팬 4종**

공중팬 2개+후라이팬 1개+뚜껑

다이아몬드 코팅보다 한 차분 더 선 안병사용 3D 코팅기술은 슬프 그대께 후자의  
관찰을 일과 고품질로 그 신빙성 세라믹 후드케이스

<p>라세나 24cm 후라이팬</p>	<p>라세나 28cm 후라이팬</p>	<p>라세나 24cm 후라이팬</p>	<p>라세나 28cm 후라이팬</p>
----------------------	----------------------	----------------------	----------------------

**\$189**  
**\$109**

**mom's COOK**  
맘스쿡 건강식마스터

250번이 넘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건강식 마스터

25분 요리완성

**\$179**  
**\$129**

**에코솔라 손주물 4종세트**



친환경 세라믹 코팅

전통에 구애하고 싶다면 그 PFOA를 고민하지 않은 자사 세라믹  
친환경 세라믹 코팅은, 세라믹에 코팅된 알루미늄이 건강에  
유해할 수 없습니다.

**\$219**

**냉생장은 쿠폰**



HEALTH COOKER

전골 코펜

사각 그릴코펜

해방 되십시오!  
혹시 냉생 안냉-  
가게 장사에서 생부 귀찮으

**\$90**  
**\$75**

보스톤코리아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BOKO MART**

주문 전화 **617-955-9112**  
www.BoKoMart.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덕적 다수 운동

"우리의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 성전 (Holy War)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도덕적 입지를 회복시켜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리 팔웰, 버지니아 린치버그의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설교, 1980년 1월)

"미국에는 도덕주의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변화를 가져오고 미국을 갱생시키기 위해 손에 손을 잡읍시다" (제리 팔웰, 버지니아 린치버그의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설교, 1980년 9월)

제리 팔웰(Jerry Falwell) 목사의 설교는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선다. "미국의 타락"에 분노한 보수적 유권자들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도록 연대하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각성을 주문하는 정치 캠페인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팔웰 목사가 1979년 6월 결성한 <도덕적 다수>는 바로 보수-기독교 우익의 정치적 전위조직이었다. 팔웰은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I love America)"라는 수사를 통해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할 것을 역설하고 다녔다. 팔웰 목사가 1970년대 초반 설립한 리버티 대학교 역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대학교육에 맞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교육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되었다.

정치적 보수주의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범

주가 다르다. 도덕적 다수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기독교 세력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왜 <도덕적 다수>는 왜 보수와 기독교 근본주의의 연대를 주문했을까?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진보적인 혹은 자유주의적인 세력의 발언권이 성장한 시기였다.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을 비롯한 여러 마이너리티의 사회 운동이 활발했다. 학생운동이 등장했고, 베트남전을 비판하는 반전 운동도 있었다. 이런 흐름에 대해 1969년 니슨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지 않을 뿐, 숫자로는 다수인 보수층, 즉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회의 진보적 변화와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력을 시끄러운 소수(vocal minority)로 만들어버렸다.

1970년대 말부터 "시끄러운 소수"에 대항하는 보수층의 결집에 기독교 근본주의가 합세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대법원 판결의 역할이 크다. 1962년 대법원의 Engle v. Vitale 판결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때문이었다. 1973년 Roe v. Wade 판결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들이 수정헌법 14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도덕적 다수의 지도자들은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일상 생활과 정치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전복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아니, 분노했다. 당시 이미 근본주의 기독교계에서는 교육에 종교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진

되고 있었다. 1970년대 헨리 모리스가 설립한 미국 창조 과학회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의 영향으로, 1970년대 말 남부의 아칸사소와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평등하다는 취지를 가진 동등시간법 운동이 벌어졌다. (1987년 대법원은 창조과학이 종교이기때문에 창조과학의 교육을 위한 동등시간법은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창조론 교육 캠페인은 1970년대 기독교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이름을 얻기 전부터, 사회적 위기의 시기마다 종교 대각성 운동은 몇 차례 있었다. 1740년대 당시 기독교 내부의 지나친 형식주의와 메마른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1차 종교대각성 운동은 결과적으로 식민지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1790년대에서 1830년대까지의 2차 종교 대각성 운동은 남북전쟁 이전 시기의 노예해방론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등에 산과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도덕적 다수 운동의 활발한 활약은 1980년 대선에서 레이건이 당선되도록 기여했다. <도덕적 다수>가 레이건을 선택했던 데에는(과거 그들이 지지했던)남부 출신 독실한 크리스찬(침례교도)인 지미 카터에 대한 배신감도 적지 않았다. 가령 <도덕적 다수>의 지도자들은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캠프 데이비드 평화 협정을 중재

한 일이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레이건 당선 이후 미국 문화 속에 공화당-보수주의-기독교 근본주의의 삼각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2000년과 2004년 부시 대통령의 당선 역시 이 삼각 동맹에 빚졌다.

한편 20세기 후반 매체의 발달은 유명 목회자들이 텔레비전, 출판, 인터넷 등을 통해 활약하는 일명 "텔레반젤리즘 (Television + Evangelism)"의 유행을 낳았는데, 도덕적 다수의 메시지는 이런 미디어 덕분에 더욱 활발하게 유포되기도 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를 거쳐 기독교 우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팔웰 목사의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훨씬 강경해졌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현재 미국의 문제를 만든 것은 바로 "이교도와, 낙태 찬성론자, 페미니스트, 대안적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이와 레즈비언들, 미국 시민 자유 연합 (ACLU) 등 미국을 세속화한 모든 이들"이라고 발언하여 비판받았다.

<도덕적 다수>운동은 보수-기독교 우파의 연대를 만드는 데도, 그들을 정치화 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오늘날 공화당 지지자의 3-40%는 기독교 근본주의 그룹이다. 그리하여 미국 사회는 좀 더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기독교윤리에 입각하여 사회의 병폐와 싸우고 있을까? 혹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타자-소수자 혐오를 뿌리내린 것은 아닐까? 종교적 성찰이 필요한 순간이다.

###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송동호 로펌 법률칼럼 - [저작권] 내가 찍은 음식 사진에 요리사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 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3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 식당에 방문한 손님은 그곳의 아름다운 음식에 감탄을 하며 음식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며칠 후, 식당의 셰프는 손님을 자신이 창조한 예술품인 음식에 대한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다...유명 식당에서 음식을 아주 예쁘게 꾸며 제시를 했을 때, 그 요리사는 예술작품을 만든 사람(Creator of a work)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해당 요리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뜨악" 할 일입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예쁜 음식들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에는 음식 사진 찍기가 너무 당연시 여겨져서 많은 분들에게 "음식 사진"은 "식사를 시작하기 위한 의식"인 듯 보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음식 사진들에 대해 요리사들이 저작권 (Copyright)을 주장한다면 큰 일입니다. 아마 비슷한 상

황인 분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 (Copyright)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창성 (Originality)", "고정성 (Fixation)", 그리고 "저작권이 가능한 작품 (Work of Authorship)"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가능한 작품 (Work of authorship)은 흔히 아홉가지로 고려되는데 문학, 예술, 드라마, 무용, 사진, 조각, 영상과 음향, 녹음, 건축, 그리고 그 연계선상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만약 뉴욕의 모마(Moma) 미술관에 가서 고흐의 "별헤는 밤"을 사진 찍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사진을 찍은 사람은 그 사진의 저작권(Copyright)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원본(original)이 아닌 복제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흔히 "work for hire"라고 표현하는 고용주를 위해 사진을 찍은 경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잡지사예 고용이 되어 패션 화보를 찍었다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잡지사에게 있고 사진사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작권에 대해 규정하는 법 조항

102(a)에 따르면 음식(food)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 (Copyrightable subject matter)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접시에 음식을 올려놓은 방식, 선택, 구성에 근거한 음식 구성 (Compilation of Food)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이 어떤 조각적인 구성 (sculptural depic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구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광고를 위해 찍은 음식 사진이나 특정 상표가 나와있는 음식제품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진을 찍었다면 필수는 아니지만 미국 디씨에 있는 Copyright Office에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사

진이 찍히고 수일 내 접수를 권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3개월 안의 신청은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만약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본 사진의 출처가 누구인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속에서 찍은 사진들에도 법적인 논쟁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자체가 생활기 때문에 제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로 느껴집니다. 찍은 사진 중에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작권에 대해 꼭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부서 소속 변호사

### 기업 고객

- 국지법
- 국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피해
- 상법
- 세금, 상속, 유언
- 수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적 범위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1

Song law firm LLC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MANHATTAN New York	FORT LEE New Jersey	WASHINGTON DC	FLUSHING New York	EDISON New Jersey	SAN DIEGO California	SEOUL Korea	HANGZHOU China
-----------------------	------------------------	------------------	----------------------	----------------------	-------------------------	----------------	-------------------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턴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 연매상 \$148,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턴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풀타임 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 및 리뷰
  - 학교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 II. SAT, ACT 실전문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목표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3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 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Korea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